

석 사 학 위 논 문

홍한주 영물시 연구

—『海翁存藁』 「詠物集」을 중심으로—

2017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문 학 전 공

윤 소 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후수

홍한주 영물시 연구

－『海翁存藁』 「詠物集」을 중심으로－

A Study of Hong-HanJu' Poems on thing
－Focusing on the 『HeaOngJonGo』 「YengMulJip」－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문 학 전 공

윤 소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후수

홍한주 영물시 연구

－『海翁存藁』 「詠物集」을 중심으로－

A Study of Hong-HanJu' Poems on thing
－Focusing on the 『HeaOngJonGo』 「YengMulJip」－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윤 소 연

윤소연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홍한주 영물시 연구

－『海翁存藁』 「詠物集」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윤 소 연

본 논문은 홍한주의 『海翁存藁』 「詠物集」에 수록된 영물시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홍한주는 풍산 홍문으로서 경화세족에 속하며 당대 사대부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유한 19세기 문인이다. 홍한주의 차기체 필기류인 『智水拈筆』에 대한 연구는 상당량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한시 연구는 소략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홍한주의 「詠物集」을 대상으로 하여 홍한주 초기 시인 영물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홍한주의 문학적 배경과 시사활동, 문집 개황과 「詠物集」 구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홍한주의 문학적 배경에서 주목할 점은 홍한주의 재종형제인 홍석주, 홍길주, 홍현주와 장인 서어 권상신과의 문학적 교유이다. 이들은 당대 명망 있는 인물들로, 홍한주는 이들과 밀접한 교유를 하며 문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시사 활동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의 활동과 지방에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南社’, ‘洛社’, ‘駱山詩社’ 등 주로 사대부 문인들과 함께 교유하며 시사 활동을 펼쳤다. 지방에서는 ‘左右社合’과 ‘尙山韻會’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홍한주가 신분적 한계를 두지 않고 詩才가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집 개황에 대해서는 우선 『海翁存藁』와 『海翁藁』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본 후에, 본 연구의 핵심인 「

詠物集」의 구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詠物集」은 5수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이 홍한주의 나이 15세~18세 때 창작한 영물시로 구성되어 있다. 영물시의 소재는 화훼류, 조류, 곤충, 사람, 자연물, 자연현상, 일상소품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게 채택되고 있었다.

3장에서는 홍한주 영물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홍한주는 육경 중에서 『詩經』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詩經』의 사물 묘사가 가장 오묘하다고 극찬하였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홍한주의 『詩經』 강조가 『論語』의 ‘學詩’로서의 『詩經』 강조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홍한주는 學詩의 과정으로서 영물시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도출한 홍한주 영물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 탐구를 통한 씹진한 묘사’이다. 학시의 과정으로서 영물에 주력한 홍한주는 사물을 치밀하게 탐구하고 그것을 씹진하게 묘사하였다.

둘째, ‘전고사용과 사물의 일반화’이다. 홍한주는 학시 과정으로서 영물시를 창작하였기 때문에 사물과 관련하여 이미 통용되는 전고들을 주로 사용하여 그 사물의 관념화된 이미지로 영물하였다.

셋째, ‘폭 넓은 소재 선택과 그 표현’이다. 홍한주는 특정 소재에 한정하지 않고 풍경(風磬), 그림자, 사람 등 다양한 소재들을 채택하여 영물하였다. 이는 學詩의 관점에서 영물을 하였기 때문에, 폭넓은 소재를 시적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주요어】 홍한주, 풍산홍문, 경화세족, 영물시, 학시, 권상신

목 차

제 1 장 序 論	1
제 2 장 洪翰周의 문학 활동과 「詠物集」분석	5
제 1 절 洪翰周의 문학 활동	5
제 2 절 문집 개황과 「詠物集」분석	24
제 3 장 學詩 과정으로서의 영물시 특징	33
제 1 절 사물 탐구를 통한 꺾진한 묘사	35
제 2 절 전고 사용을 통한 사물의 일반화	41
제 3 절 폭넓은 소재 선택과 그 표현	51
제 4 장 結 論	59
참고문헌	60
ABSTRACT	65

제 1 장 서 론

본 연구는 홍한주(洪翰周: 1798~1868)의 초기 문학 활동의 과정에서 창작한 영물시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18세기~19세기는 장서가의 출현과 원예·원림의 관심이 증폭되던 시기이다. 그 중심에는 경화세족이 있었으며 이들은 장서와 고동서화(古董書畵) 및 원림 조성 등을 자신들만의 문화로 정착시켰다.¹⁾ 특히 독서에 대한 관심은 박학이라는 풍토를 형성하였으며 홍한주 역시 풍산 홍문으로서 경화세족에 속하며 당대 사대부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유한 19세기 문인 중 한 명이다.

홍한주는 죽리(竹里) 김이교(金履喬: 1764~1832)와 현루(玄樓) 이희현(李羲玄: 1765~1828)로부터 명대 후칠자인 ‘이반룡(李攀龍)에 비견될 만하다’²⁾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대 연구자들은 홍한주의 『智水拈筆』을 세계사의 시대 조류를 인식하고 출판·문화 및 이국 문물에 관련된 동아시아적 시각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³⁾ 이상의 평가들은 19세기 문학사에서 홍한주의 위상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홍한주에 대한 연구는 『智水拈筆』로부터 시작되었다. 임형택은 이우성에 의해 『지수염필』이 영인되자 『지수염필』을 검토한 뒤 작자를 홍한주로 추정하였다.⁴⁾ 이상동은 홍한주가 대내적 인식에 대해 자기 나름의 비판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서세동점의 상황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홍한주가 특정 시대에 편향하

1)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학사연구』제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180-186면 참조.

2) 洪翰周, 『智水拈筆』, <金履喬>, “...適竹里金公履喬 因省墓行歷縣入政堂 偶見桉上詩驚問 知爲余詩 卽招余問齒 亟稱歎 仍求近日諸詩 故竝以亂草 示呈金公 行忙袖去 在道盡閱之 仍歷新昌訪玄樓李公羲玄 出示余諸篇曰 吾今行 得見當世之雪樓七子 時玄樓在謫 聞而奇 至以詩見遣 成蘿山晚鎮 老於詩 有盛名 家居新昌 亦聞竹里言 以詩寄之 余今皆忘之 但記玄樓一聯曰 判不染跡青雲路 訝許齊名白雪樓...”, 번역은 김윤조 외(2013) 403-405면을 참고하였다. ‘白雪樓’는 李攀龍의 당호(堂號)로, 이반룡을 지칭한다.

3) 진재교, 「19세기 筓記體 筆記의 글쓰기 양상: <智水拈筆>를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유통」, 『韓國漢文學研究』 第36輯, 한국한문학회, 2005, 364-375면 참조.

4) “벽사 이우성에 의해 『서벽외사해외수일본』(아세아문화사) 제13권으로 영인·간행되었을 때 임형택이 처음으로 해제를 하며 저자를 홍한주로 추정하였다.” 『19세기 건문지식의 축적과 지식의 탄생 상』, 소명출판, 2013, 참조.

지 않고 다양한 양식의 문학을 수련했음을 밝혔다.⁵⁾ 김혜경은 『智水拈筆』을 요약, 일화, 세부 묘사 등 체재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⁶⁾

진재교는 홍한주의 생애와 관력 및 문학적 특징을 소상하게 다루고, 홍한주의 문학적 위상을 풍산 홍문 내에서 구명(究明)하였다.⁷⁾ 이어진 논의에서는 『智水拈筆』을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해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김윤조는 진재교의 논의를 바탕으로, 『海翁存藁』와 『海翁藁』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홍한주의 일기 3종을 통해 『지수염필』의 집필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⁸⁾ 이경구는 『智水拈筆』의 251개 기사(記事)를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지수염필』이 전통 지성계의 도달점이라고 결론지었다.⁹⁾ 김선희는 홍한주를 ‘19세기 독자적 지식층을 형성한 인물’로 정의 내리고, 홍한주가 서양 기술은 인정하지만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다고 밝혔다.¹⁰⁾

장효현은 서유영의 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유영의 절친한 지우(知友)로 홍한주를 부각시키고, 서유영을 중심으로 홍한주와의 교유관계 및 시사활동을 살폈다.¹¹⁾ 강혜선은 홍한주의 한시를 ‘擬古詩 습작과 古詩의 세계’, ‘詩會, 詩社 활동과 遊賞詩의 세계’, ‘여행체험과 紀行詩, 竹枝詞의 세계’의 주제로 살펴보고, 홍한주의 한시가 음풍농월 및 개인적 정감과 흥취에 치중되었음을 밝혔다.¹²⁾ 최은주는 홍한주가 상주목사로 있을 당시 지은 시를 중심으로 교유관계와 문자 수수양상을 밝혔는데, 홍한주는 자신의 출신과 정치적 지향을 적절히 발휘하여 교유관계를 형성했으며, 문학적 교유에 있어서는 당파 및 신분계층에 구애 받지 않고 문예에 초점을 둔 교유를 하였다고 밝혔다.¹³⁾

5) 이상동, 「洪翰周의 <智水拈筆> 研究 -19세기 중반 한 지식인의 時代認識과 文學論-」,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6) 김혜경, 『海士 洪翰周의 <智水拈筆>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7) 진재교, 「<智水拈筆> 연구의 일단: 작가 홍한주의 가문과 그의 삶」, 『한문학보』 제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8) 김윤조, 「홍한주의 일기와 <智水拈筆> 저작」,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9) 이경구, 「홍한주의 <智水拈筆>」, 『한림대학교 개념과 소통』 제12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3.

10) 김선희, 「19세기 지식장의 변동과 문명의식: 홍한주, 이규경,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48집, 한국사상사학회, 2015.

11) 장효현, 「徐有英 文學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2) 강혜선, 「洪翰周의 漢詩 研究」, 『돈암어문학』 제17호, 돈암어문학회, 2004.

13) 최은주, 「지방수령의 지역에서의 교유와 문자수수-19세기 상주목사 홍한주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홍한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지수염필』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홍한주 한시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실정이다. 물론 강혜선에 의해 홍한주 한시의 대략적인 특징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반룡에 비견되며 뛰어난 시재(詩才)를 인정받았던 홍한주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한주의 초기 창작물인 「詠物集」을 대상으로 홍한주 초기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홍한주의 「詠物集」을 대상으로 영물시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한주 『海翁存藁』에 수록된 문집들은 시기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지역명 혹은 당호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詠物集」은 15세(1812년)에서 18세에(1815년)까지 창작된 ‘영물시(詠物物)’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주제로 문집명을 삼고 있다. 이는 홍한주가 시를 배우는 문학 활동 초기에 영물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 시기 영물시 창작에 주력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홍한주가 실제로 『詩經』과 영물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한주는 공자가 강조한 學詩의 중요성과¹⁴⁾같은 관점에서 『詩經』의 ‘興觀群怨’을 인지하고 있었다.¹⁵⁾ 뿐만 아니라 『詩經』이 육경 가운데 사람을 가장 잘 감화, 계발시키고 흥기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詩經』을 육경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여겼다.¹⁶⁾ 또한 ‘사물에 대한 묘사는 『詩經』보다 오묘한 것은 없다’¹⁷⁾고 말하면서, 각각의 사물에 맞는 소리와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영남집』 제22호, 영남대, 2012.

14) 『論語』, 「季氏」, “陳亢 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15) 洪翰周, 『海翁文藁』, 「序」, <左右社合詩選序> “…子曰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可以觀可以羣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夫詩之道 至於事父事君 而有足以興觀羣怨 則若是者雖爲政於天下 國家可也…”

16) 洪翰周, 『智水拈筆』, <孔子善言詩>, “六經中最能感發興起人者 莫近於詩 故聖人 亦徒以鼓動之也…” 김윤조 외(2013) 135-136면을 참고하였다.

17) 洪翰周, 『智水拈筆』, <狀物之妙> “古人狀物之妙 莫善於三百篇 雨雪則霏霏 楊柳則依依 蕭蕭者馬鳴 悠悠者旆旌 無以加矣 蓋象形象聲 有可通用者 有可用於此而不可用於他者 如鳥鳴嚶嚶 呦呦鹿鳴 當爲鳥與鹿之鳴 不當爲他禽獸聲也 如雉鳴之關關 黃鳥之錦蠻 雖移用於鳥雀亦可也…” 김윤조 외(2013) 135-136면을 참고하였다.

이상의 언급들은 홍한주가 『論語』에서 공자가 學詩로서 『詩經』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詩經』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는 것이며, 더욱이 사물의 형상화 즉, ‘詠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홍한주의 「詠物集」을 대상으로 영물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홍한주 한시의 특징을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홍한주 문학을 이해하는 기저로서 문학 활동과 문집 개황을 진행하고자 한다. 문학 활동은 크게 문학적 배경과 시사 활동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문학적 배경에서는 홍한주의 재종형제들과 그의 장인 서어 권상신과의 문학적 교유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활동은 서울·경기지역에서의 활동과 지방에서의 활동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문집 개황은 『海翁存藁』와 『海翁藁』의 특징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詠物集」의 시기 및 소재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詠物集」을 중심으로 ‘학시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홍한주의 영물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洪翰周의 문학 활동과 「詠物集」 분석

홍한주는 육경 중에서도 『詩經』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열아홉 살의 나이에 설루칠자의 이반룡에 비견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시재가 있었던 인물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홍한주가 젊은 시절 문학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인물들을 살펴본 후, 시사(詩社) 활동을 서울·경기지역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시문집 『海翁存藁』와 『海翁藁』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詠物集」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홍한주의 문학 활동

본 절에서는 홍한주의 문학 활동을 문학적 배경과 시사 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문학적 배경에서는 홍한주가 어린 시절부터 교유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문학적 교유와 영향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사 활동에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의 활동과 지방에서의 활동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홍한주의 문학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홍한주 연구의 바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문학적 배경

홍한주의 문학적 배경은 어린 시절부터 교유했던 재종형제들과 장인 권상신을 중심으로, 이들과의 문학적 교유와 영향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가) 홍한주와 재종형제

홍한주는 19세기 문인으로 자는 헌경(憲卿)이며 호는 해사(海士), 쌍송관주인(雙松館主人), 운당(芸堂), 해옹(海翁)이다.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올라 익위(翊衛)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배천(白川), 의성(義城), 상주(尙州) 지

역에서 관직을 수행하였다.¹⁸⁾

홍한주는 경화세족을 대표하는 풍산 홍문(豊山 洪門)의 인물로 증조부 홍상한(洪象漢: 1710~1769)은 당대의 거유였던 기원(杞園) 어유봉(魚有鳳: 1672~1744)에게 학문을 전수받았다. 조부 홍낙명(洪樂命: 1722~1784)은 한유를 깊이 배워 문장이 간고(簡古)하고 엄정하며, 급격하고 기이한 변화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⁹⁾

홍한주와 관련해서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은 그의 재종형제인 홍석주(洪奭周: 1774~1842), 홍길주(洪吉周: 1786~1841), 홍현주(洪顯周: 1793~1865)이다. 이들은 주지하다시피 당대 문학적으로 인정받았던 인물들로 홍한주와 긴밀한 문학적 교유를 맺었다.

홍석주는 고려와 조선의 대표적인 고문가(古文家)들의 작품을 선별한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鈔)』에 문장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문재를 인정받았다. 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은 ‘홍연천의 문장은谿谷과澤堂 이후 수백 년간 이만한 기상과 품격은 일찍이 없었다.’²⁰⁾라고 평하여 그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였다. 정조 또한 ‘경학에 자득한 견해가 많으니, 실제적인 공부의 있음을 알겠다.’라며 그를 총애하였다.²¹⁾ 홍길주는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 1760~1843)에 의해 ‘내 문장은 어떻게 하면 洪平康과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극찬을 들었으며²²⁾, 홍한주는 홍길주를 ‘근세의 빼어난 재주를 지닌 인물로서 홍석주와 서로 우열을 다룬다’라고 인정하였다. 홍현주는 정조의 부마였으며 청나라 옹방강(翁方綱)의 아들인 옹수곤(翁樹崑)과 교유하며 서화(書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²³⁾ 세 형제는 자신들의 시를 간추려 엮은 『永嘉三怡集』을 발간하였으며 이 책은 당대 문단에서 유행하였다.²⁴⁾

18) 홍한주의 官歷과 관련된 연구는 진재교(2005)에서 연구된 바 있다.

19) 허인재, 「新齋 洪樂命 史論 散文 譯註」,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면 참조.

20) 洪翰周, 『智水拈筆』, <淵泉公 沆海公>, “...金臺山邁淳常言 洪淵泉之文 谿澤然後數百年 無此氣格...” 번역은 김윤조·진재교 역 下(2013) 348-381면을 참조하였다.

21) 허권수, 「淵泉 洪奭周의 家門的 문학환경과 문학성향」, 『漢文學報』 第15輯, 2006, 11-16면 참조.

22) 洪翰周, 『智水拈筆』, <淵泉公 沆海公>, “...金陵南領相公轍, 嘗自閱所著, 喟然嘆曰 吾文何以則如洪平康...” 번역은 김윤조·진재교 역 下(2013) 348-381면을 참조하였다.

23) 이군선, 「해거 홍현주의 서화에 대한 관심과 주장」, 『한문교육연구』 제3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285-307면 참조.

한편 홍길주는 장서에 높은 관심을 두어 표룡각(標龍閣)이라는 장서루를 지니고 있었고²⁵⁾, 홍현주는 부마라는 경제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동호(東湖)에 진경재(眞境齋)라는 별장을 짓고 장서하였다.²⁶⁾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장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홍석주는 홍씨 문중 및 후학들의 학문 방향을 잡아 주기 위해 도서의 목록을 『洪氏讀書錄』에 담아 정리하였다.²⁷⁾ 홍길주가 저술한 독서록 『書林日緯』는 19세기 경화세족의 학술과 문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²⁸⁾ 홍현주 또한 자신이 읽은 책의 종류를 「海居書目序」에 남겨 놓았다.²⁹⁾

이상과 같이 홍한주의 재종형제들인 홍석주, 홍길주, 홍현주는 당대 학문적, 문학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홍한주의 문집을 보면, 홍한주가 이들과 어린 시절부터 이미 친밀한 교유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한주가 1815년 호서(湖西)지방의 관찰사로 부임하는 홍석주를 우연히 모시고 돌아와서 지은 시의 제목을 보면,³⁰⁾ “삼가 이별하고 집에 돌아오니 이별의 슬픔을 가누기 어렵고” 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홍한주가 홍석주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홍석주에게 여러 편의 시를 올려 존경을 표하기도 하였으며,³¹⁾ 『지수염필』에도 홍석주의 학문적 위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서술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시는 홍석주가 홍한주에게 보낸 것으로 두 사람의 문학적 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

24) 허권주, 위의 논문, 11-12면 참조.

25) 진재교, 「경화세족의 독서성향과 문화비평-19세기 洪蕡周가의 경우」, 『독서연구』 제10집, 한국독서학회, 2003, 246-248면 참조.

26) 이군선, 위의 논문, 285-307면 참조.

27) 이상용,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0輯, 2005, 249면 참조.

28) 최식, 「沆瀣 洪吉周의 讀書趣向과 <書林日緯>」, 『大東漢文學』 第二十九輯, 대동한문학회, 2008, 417-418면 참조.

29) 진재교, 위의 논문, 248면 참조.

30) 洪翰周, 『海翁存藁』, 「覆瓿續集」, <乙亥秋, 再從兄淵泉丈, 按卽湖西其赴任之時, 余適有事, 湖行陪往錦營, 纔留三四晝夜, 拜別歸家, 難攄悵離之懷, 閉門寥落, 無以爲聊, 偶閱王元美詩拈, 其韻得數詩, 遙有此寄 其二>, “掖垣舊日紫薇郎 玉節今來按一方 爲說相逢賢刺史 南人應復詠甘棠”

31) 洪翰周, 『海翁存藁』, 「覆瓿續集」, <次韻呈淵泉兄> 2首, <又次南里兄韻 呈淵泉兄> 2首, <又呈淵泉兄 十絕>, 「湖海集」, <拱北樓 次西峒韻 呈再從淵泉兄>, 「壺谿集」, <淵泉先生垂老 遠役余不能從焉 追至湏上三宿 而歸不禁離索之懷 遂占近體數篇以助行囊>, 「芸堂二集」, <謹次沆瀣丈江樓續什韻 呈淵泉先生>

<次再從弟憲卿翰周寄驢韻-육촌 아우 헌경 한주가 노잣돈으로 준 시에 차운하다>³²⁾

文章謾抱挾風霜	부질없이 문장을 품어 풍상을 끼었고
瓠落無成歲月荒	큰 뜻은 이룬 것 없고 세월은 흘러가네
六十光陰非少壯	육십년 세월은 젊은이가 아니니
三千道路亦悠長	삼천리 길은 또한 아득하고 멀구나
君卿叱馭猶餘勇	군경은 마부를 꾸짖으니 오히려 용기가 남아 있는데
王粲登樓奈異方	왕찬은 누대에 오르니 어찌 다른 지방인가
爲報年來詩思盡	근래에 시 짓는 생각 다했다고 말하겠노니
跛奚羞澁只空囊	절름발이는 소해는 단지 빈 주머니가 켜끄럽구나.

위의 시는 홍석주가 58세 무렵 사은사(謝恩使) 정사(正使)로 연경(燕京)으로 가면서 홍한주가 지어준 시에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1,2구는 홍석주 자신이 뛰어난 문장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룬 것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자탄이라 할 수 있다. 3,4구는 1,2구와 조응되어 육십이 다 된 늙은 나이에 사신을 가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늙은 그에게 삼천리 사신 길은 아득하고 멀기만 한 것이다. 5,6구는 이국땅으로 사신가는 자신을 강릉(江陵)의 성루(城樓)에 올라 <登樓賦>를 지은 왕찬으로 비유하여, 힘든 여정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 두 구는 홍한주가 부쳐온 시에 차운하며 시 짓기 어려운 홍석주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즉, 李賀가 출타할 때마다 어린 종 小奚에게 시주머니를 들게 하고 시를 지어 주머니에 던져 넣었다가 집에 돌아와 완성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절름발이 소해가 빈 주머니를 켜끄러워한다’는 것은 홍석주 자신이 시를 짓지 못해 부끄럽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시가 홍한주를 의식하고 지었다는 점에서 이 당시 홍석주와 홍한주의 친밀한 문학적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홍한주는 1817년에 재종형제들과 함께 모여 시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2) 洪奭周, 『淵泉集』, 卷四.

<陪淵泉沆瀣海居諸公 泛西湖 拈少陵何將軍山林韻 共賦>³³⁾시에서 볼 수 있듯이, 홍한주는 재종형제들과 서호에서 배를 타며 두보의 <何將軍山林>시에 차운하며 함께 시를 짓기도 하였다. 홍한주는 재종형제 중에서도 특히 연령대가 비슷한 홍길주, 홍현주와 잦은 교유를 하였다. 이들은 늦은 밤에 서로를 방문하여 함께 시를 짓기도 하였으며³⁴⁾ 여행을 함께 다니기도 하였다.³⁵⁾ 또한 홍한주가 충남 아산에 머물면서 서울로 돌아가는 홍현주를 작별하지 못해 지은 시에 ‘오늘 밤 그리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³⁶⁾라는 언급을 통해서 볼 때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再從兄永明尉，常以老大自處，故賦此詩以嘲。其五—재종형 영명위가 항상 늙었다고 자처하므로 이 시를 지어 조롱하다.>

大耋阿兄雪若肥	팔 십 넘은 우리 형은 눈같이 살이 찼고
矜孀弱弟不勝衣	비틀거리는 어린 동생은 옷도 이기지 못한다네.
懼仙自是飯山客	구선은 스스로 飯顚山の 객이라고 자처하니
獨笑便便腹十圍	홀로 웃으며 똥똥하게도 배가 십위가 되었네.

이 시는 1816년, 홍현주가 항상 스스로 늙었다고 자처하자 그 모습을 본 홍한주가 조롱하며 보내는 시이다. 홍한주는 당시 마흔 두 살인 홍현주를 살이 찐 팔십 세가 넘은 노인(大耋)으로, 자신은 옷을 입을 수도 없을 정도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어린 동생(弱弟)으로 설정하며 상반되는 모습을 통해 홍현주를 조롱하고 있다. 이는 홍현주와 홍한주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근하게 지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33) 洪翰周, 『海翁存藁』, 「覆瓿續集」, <陪淵泉沆瀣海居諸公泛西湖拈少陵何將軍山林韻共賦>其二, “往遊又陳跡 雲物近如何 澹蕩輕烟盡 微茫夕照多 漁人欸乃曲 商女竹枝歌 記取西湖路 邊應載酒過” 차운한 시는 다음과 같다.<何將軍山林 其十> “幽意忽不愜 歸期無奈何 出門流水住 回首白雲多 自笑燈前舞 誰憐醉後歌 祇應與朋好 風雨亦來過”

34) 洪翰周, 『海翁存藁』, 「覆瓿三集」 <海居齋夜訪仍拈居字>, “忽憶謝家寶 重過戴氏居 燈深西閣裏 月上東林初 好說無生法 窮探有字書 薄言命尊筆 狂歌意未摠”, <宵分各呼一字共賦>, “紅葉黃花滿眼秋 招呼明月到高樓 無端更憶西堂夢 惆悵沈園一夜留”

35) 洪翰周, 『海翁存藁』, 「湖海集」, <夜自寒山寺拈舟以下> “偶與王孫作伴遊 孤舟蕩漾白蘋洲 直到江城門欲閉 夜深橫笛下中流 (是行也 與海居共遊 故謂之王孫)”

36) 洪翰周, 『海翁存藁』, 「湖海集」, <再從兄永明尉 自錦上還京師 余在牙州 不得就別 賦詩送之 其一>, “路入牙州四馬歸 湖山從此故人稀 今宵未作相思夢 秋草公齋獨掩扉”

<仲冬廿六夕會海居書室 觴而無咏 沆瀣追賦一律 故次之-동짓달 26일 저녁에 해거의 서실에서 모여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지 않다가 항해가 뒤쫓아 읊시 한 수를 지었다. 그러므로 차운하다.>³⁷⁾

頭白阿兄在	흰 머리의 형이 있으니
吾猶婪尾杯	내가 오히려 술을 연거푸 마시게 되네.
煖香圍繡幙	따스한 향기는 수놓인 장막을 감싸고
華燭擁繁梅	환한 촛불은 무성한 매화나무를 따르네.
屋角疎星逗	지붕 위에 성긴 별이 떠있고
林端缺月來	수풀 끝에는 이지러진 달이 떠있다네.
淸言不知曙	맑은 말들로 새벽이 온 것을 알지 못하니
今夜寸心開	오늘 밤 작은 마음이 열었다네

이 시는 1838년에 홍현주의 서실에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홍길주가 시를 읊자, 그 시에 홍한주가 차운한 것이다. 홍한주는 홍길주를 형(阿兄)이라고 칭하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따스한 향기(煖香), 환한 촛불(華燭)로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을 따듯한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읊은 것들을 맑은 말(淸言)이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이 열린다고 한다. 이는 홍한주가 홍길주, 홍현주와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며 시를 읊고 있는 상황을 자신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어린 시절부터 교유했던 홍한주와 재종형제들이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문학적 교유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홍한주는 부마의 위치에 있던 홍현주에게 서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홍현주가 익종(翼宗)에게 부탁하여 『圖書集成』을 볼 때 홍한주를 불러서 함께 열람하며 한두 번 왕래한 일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⁸⁾

37) 洪翰周, 『海翁存藁』, 「芸堂二集」

38) 洪翰周, 『智水拈筆』, <古今圖書集成>, “...向在丁亥夏 翼宗代理時 余再從兄海居公 以禁衛 嘗私侍 公伏地奏曰 臣既非閣臣 圖書集成 一生未見 願乞一借 翼宗笑許之 仍命掖隸 領送公第 公招余同閱 故余亦一再往 見其綱領矣...” 번역은 김윤조·진재교 역 上(2013) 98-100면을 참조하

다음의 시는 1820년 홍한주가 당대 장서가였던 홍현주에게 고서(古書)를 빌리는 모습을 시화한 것으로, 홍한주의 문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해 준다.³⁹⁾

<步海居公第二韻, 賦古體以呈, 乞得古書.-해거공 제 2운에 차운하여 고체시를 지어서 올리고 고서를 구하다.>

插架三萬軸	서가에 꽂힌 삼만 권의 책들
移家三十車	집을 옮길 때는 30대의 수레
古人貴嘉惠	옛 사람들은 은혜 베풀어줌을 귀하게 여기는데
今人委蠹魚	오늘 날의 사람들은 좀벌레에게 맡겨둔다네
子雲好奇字	揚雄은 기이한 글자를 좋아하였고
釋川好秘書	葛洪은 秘書를 좋아했네.
七略與四部	七略과 四部는
爲我供索居	나 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네
與君俱綠鬢	그대와 나는 젊으니
努力向三餘	공부하는 데 노력합시다.

홍현주는 장서(藏書)에 취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장서한 책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빌려주며 함께 공유했다고 한다.⁴⁰⁾ 위의 시 역시 홍한주가 고시 한 수를 지어주고 그 대가로 홍현주에게 고서를 빌리고자 하는 것을 통해 장서가로서 홍현주의 면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는 역으로, 홍현주의 장서 취미가 결국 젊은 시절부터 홍한주의 학문과 문학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구에 홍한주가 홍현주에게 책을 빌리며 ‘그대와 나는 젊으니 공부하는 데 노력합시다.’라고 한 언급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홍한주는 어렸을 때부터 홍석주, 홍길주, 홍현주와 함께 교유하며 서로 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

였다.

39) 강혜선, 위의 논문, 362-363면을 참조하였으며 번역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40) 이군선, 위의 논문, 302-305면 참조.

작된다.

나) 홍한주와 권상신

홍한주의 문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은 서어(西漁) 권상신(權常愼: 1759~1824)이다. 권상신은 홍한주의 장인으로, 형조참판, 호조참판, 예조참판, 병조참판, 공조참판에 올랐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명성이 있었던 인물이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詩文이 웅장하고 섬세하였으며 그 묘함에 이르러 시단의 여러 공들이 자랑하고 칭찬하였다...公의 풍채는 드물게 빼어났으며, 기량은 시원스러워 세속에 울적하고 기운 빠진 태도가 없었다. 담론하는 것을 잘하여 논변이 매우 날카로웠다. 매양 사물을 인용하여 비유하였으니 때때로 매우 놀라웠다.’⁴¹⁾라고 평가되며 당대 문단을 주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홍한주 또한 ‘나의 장인 서어 권공께서는 문사가 뛰어났고 시가를 더욱 잘하여 사대부들 중에서 풍류와 문채가 한 시대를 밝게 비춘다.’⁴²⁾라고 칭송하였다.

권상신의 집안은 유력 가문들과 혼반(婚班) 관계가 겹겹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홍한주의 조부인 홍낙명이 권상신의 장인이라는 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홍한주와 권상신은 장인과 사위가 되기 이전부터 고모부와 처조카 사이로 알고 지낸 것으로 짐작된다.

홍한주와 권상신의 교유가 밀접하게 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문집에 장인어른(外舅)이라는 호칭이 등장한 시를 참조해 보면, 1813년 홍한주의 나이 16세 때로 추정된다.⁴⁴⁾ 이 시기에 홍한주는 소동루(小東樓)를⁴⁵⁾

41) 洪直弼, 『梅山集』, 「墓碣名」, <判中樞贈右議政權公墓碣銘 并序○乙巳> ‘...惜哉 詩文汪洋纖密 各臻其妙 爲詞苑諸公所推詡 ...公風儀疎秀 器宇雋爽 無世俗恣憊暖妹之態 善談論 踔厲風發 每引物比類 往往警絕...’

42) 洪翰周, 『智水拈筆』, 「風流文彩」, ‘...余外舅西漁權公 長於文辭 尤善歌詩 在搢紳中 風流文彩 照映一時...’, 번역은 김윤조·진재교 역 上(2013) 405-410면을 참고하였다.

43) 김하라, 「<西漁遺稿>와 그 주변」, 『규장각』 제46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46-92면 참조.

44) 洪翰周, 『海翁存藁』 1책, 「玄湖集」에 <次軸中韻呈外舅權公>가 실려 있는데, 이 시에 처음 ‘外構’라는 호칭이 등장한다. 『海翁存藁』는 시기별로 편찬되어 있는데 <次軸中韻呈外舅權公>는 계유년(1813)에 지은 것이다.

45) 『海翁存藁』 「玄湖集」 <玄湖雜詠次淵翁韻>에서 “현호는 울도와 접해 있다(玄湖接栗島)” 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栗島’는 오늘날의 밤섬으로 창천동과 당인동에 걸친 마을이다. 이에 소동루는 西湖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방문하였는데, 소동루는 권상신의 누정으로서 당대 최고의 가기(歌妓), 시와 그림, 노래가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한다.⁴⁶⁾ 조선 중기부터 한강변의 누정이 사적인 교유 장소나 풍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⁴⁷⁾ 19세기 소동루는 당대 최고의 문화교류의 장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홍한주의 초기 문집인 「玄湖集」에는 소동루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⁴⁸⁾ 이는 홍한주와 권상신의 밀접한 문학적 교유를 방증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의 시는 1813년, 홍한주가 16세 때 권상신에게 올린 시이다.

<次軸中韻 呈外舅權公-시축에 있는 운에 차운하여 장인 권공께 올린다.>

漁笛江天欲暮時	강 하늘엔 어부의 피리소리, 해는 저물어 가는데
扶疎影動老槐枝	늙은 회화나무 가지, 무성한 그림자는 흔들거리네
可憐何處尋春色	가련하도다! 어느 곳에서 봄빛을 찾는가
樓上高人白鬢絲	누대 위 고인의 귀밑머리는 백발이 되었구나.

홍한주가 바라보고 있는 고인(高人)은 권상신으로, 봄빛을 찾고 있으며 귀밑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봄빛은 표면적으로는 계절로서의 봄이지만, 지나간 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홍한주는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어가는 권상신을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1816년 권상신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충청도 한산(韓山)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도 홍한주는 ‘본디 평생의 뜻이 점점 어그러짐을 깨닫고 공이 돌아가나 나는 함께 가지 못하네.’⁴⁹⁾라고 말하며 송별시를 보내어 권상신과 함

46) 趙斗淳, 『心庵遺稿』卷7, <自三湖洗心亭 移卜玄石之小東樓 今二年矣 而前冬信宿殆忿忿 癸卯五月 得更來錄雜識> “族大父判書榮國氏 始建此樓 余年十八歲癸酉 以脾病爲飲江心 僦此樓西邊 所謂觀水樓 留數月 時權西漁尙書常愼氏 爲小東主人 所蓄聲妓詩畫韻絕一時 今爲三十有一年。

47) 정후수, 「<樂健志詠>으로 본 17세기 漢江 下流의 새로운 문화 공간 杏湖」, 『東方學』第32輯,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5, 335-345면 참조.

48) 洪翰周, 『海翁存藁』, 「玄湖集」, <題小東樓>, <冒雨出玄湖道中口號> “蹇驢斜日灞橋興 短髮蕭灑暮風 伐木群童山影裏 浣紗寒女水聲中 店烟惹雨村村暗 野柳垂門面面同 遙指綠陰如屋處 依然隱映小東樓”, <出小東樓有作>,

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다. 결국 홍한주는 같은 해 권상신이 있는 한산으로 내려가게 된다.⁵⁰⁾

<題外舅西漁權公林亭 其七-장인 서어 권공의 임정에 쓰다.>

爲學要須到不疑	배움은 반드시 의심함이 없는 것에 이르러야 하는데
元來世事苦參差	원래 세상일은 매우 들쭉날쭉 하다네.
死生往復皆天也	죽음과 삶이 왕복하는 것은 모두 하늘에 달려 있으니
何用區區怨落暉	어찌 구구하게도 지는 해를 원망하리오.

위의 시에서 홍한주는 아들을 잃은 권상신을 위로하고 있다. 1,2구는 배움과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다. 배움은 의심이 없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세상사는 들쭉날쭉하여 배운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천명을 다 하지 못하고 요절한 권상신의 아들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다. 이치대로라면 부친인 권상신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아들이지만,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었다는 말이다. 3,4구에서는 아들의 죽음은 슬프지만, 이 삶과 죽음은 또한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다.

이후 홍한주는 권상신과 함께 장암(長巖), 백련암(白蓮菴), 영보정(永保亭)을 돌아다니며 경치를 완상하고 시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⁵¹⁾ 다음의 시는 장암 뒷산에 올라서 지은 것이다.

<登長巖後山望海-장암 뒷산에 올라서 바다를 바라보다>

十九年來始遠游	열아홉 살이 되어 처음으로 멀리 왔으니
敢言此水劣容舟	감히 이 물이 배를 받아들이기 좁다고 말하겠는가.
海氛泱泱潛蛟室	바다의 기운은 넓으니 교룡의 집이 잠겨있고

49) 洪翰周, 『海翁存藁』, 「覆瓿續集」, <送外舅權公韓山別業八首 其八>, ‘素志平生漸覺違 公歸不得我同歸 折花臨水夷猶意 明日江南驛使稀’

50) 홍한주가 권상신을 직접 만나러 간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청도로 내려가는 여정을 담은 시 <舟入恩津江鏡浦>에서 “한산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가(韓山此去路何賒)”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한산에서 권상신을 만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51) 權常愼, 『西漁遺稿』, 冊二, <和洪郎望海樓韻>, <又>, <和洪郎舟到長巖遇雨韻>, <次洪郎重午江遊韻>, <和洪郎寄示韻>, <次洪郎永保亭寄示韻>

鉤氣崢嶸起蜃樓	칼 빛 같은 파도 씹씩하니 신기루가 일어나네
天外陰雲迷鰈域	하늘 밖 먹구름은 우리나라가 희미하고
日邊歸帆落鰲頭	해 가에 돌아오는 배는 오산에 떨어지네.
童船去後無消息	아이가 탄 배는 떠난 후에 소식이 없으니
謾有浮生萬里愁	부질없이 덧없는 인생에 끝없는 시름만 있다네

서천으로 내려간 홍한주는 장암(長巖)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는데, 열아홉 살이 되어 처음 먼 곳으로 여행을 한다고 말한다. 그 후 바다를 바라보며, 웅장한 모습을 보고 감격해하며 한껏 기운 찬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시선은 광대한 바다에서 다시 칼빛 같은 파도로 쏠리며 바다의 장엄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곧 곳은 날씨로 인해 돌아오는 돛단배가 오산에 떨어지고, 아이가 탄 배(童船)는 떠난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한다. 여기서 동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마지막 구절 ‘萬里愁’와 조응해 볼 때 권상신의 요절한 아들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기에 홍한주는 마지막 구절에서 인생의 부질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결국 홍한주가 장암에서 권상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의 시는 홍한주의 시에 권상신이 화운한 것이다.

<和洪郎望海樓韻-홍랑의 망해루 운에 화답하다>⁵²⁾

年小男兒喜壯遊	젊은 남자는 씹씩하게 노는 것을 기뻐하노니
滄波萬頃倚高舟	창파만경에 높은 배에 기대어 있네.
山川氣鍾連天石	산천의 기운은 하늘에 닿는 돌에 모이고
日月光生望海樓	일월의 빛은 망해루에서 생겨나네.
我亦昔年非白髮	나 또한 예전에는 백발이 아니었으나
老猶高興付黃頭	늙어도 오히려 고아한 흥치는 황두에 부치네.
俯看此水深如許	이 물 굽어보니 깊이를 알 듯하니
倘滌胸中萬斛愁	혹시나 가슴 속 만곡의 시름 씻을 수 있을까나.

52) 權常愼, 『西漁遺稿』, 冊二

1구에서 권상신은 ‘어렸던 남자아이가 장성해서 여행함을 기뻐하고’라고 한다. 이는 권상신이 홍한주가 장성하기 전,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장성한 홍한주에 비해 권상신은 머리가 하얗게 버린 나이가 든 모습이다. 그는 씩씩한 홍한주와는 달리 온갖 시름을 안고 사는 늙은이며, 그 시름을 파도에 씻어내고자 하고 있다. 이는 권상신이 젊은 홍한주를 보고 늙은 자신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홍한주와 권상신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걱정과 위로를 하는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홍한주와 권상신은 문학과 관련하여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홍한주는 권상신이 여러 가문의 작품들을 선(選)하는 것을 보고, 글을 짓지 않고 선에 집중하고 있는 선비들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근래에 장인어른께서 여러 가문의 시를 뽑는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가 저의 뜻을 펼치고자 하나 감히 작은 뜻일 뿐입니다. ... 옛날의 문인들의 경우 각각 이러한 것이 보이니, 夫子는 藉口, 嚆矢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文選』은 『詩經』을 모방한 것이 되며 簫統은 남상의 시조가 됩니다. 이로부터 글을 쓰는 선비들이 분연히 무리지어 일어나 글을 짓는 것을 버리고 책을 선별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니 陳明卿과 鍾惺과 譚元春에 이르러서는 險僻되며 도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古今 사람들의 안목은 같지 않기 때문에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選家함에 한 책을 만들어도 빼어난 책이라고 이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붓 가는대로 써서 아무생각 없이 경솔함이 심하였습니다.”⁵³⁾

위의 인용문은 시를 선별하는 일을 맡게 된 권상신에게 홍한주가 올린 편지글이다. 홍한주는 지금의 선비들이 글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글들을 선별하여 책으로 엮는 데에 치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홍한주는 옛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선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 좋은 작품을 뽑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에게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53) 『海翁存藁』, 「芸堂雜文」, <上外舅書> “伏聞外舅於諸家有抄選 爲之神王思欲一進 敢質微意 然此等事 出於消遣則 或可也 而若爲其楊扞藝文 評騭 古今必欲傳后而後已則 私心恐有所不能釋然者矣 在昔文人各是已見而 於夫子 爲藉口 嚆矢之資 故文選倣於冊詩而 簫統爲濫觴之祖 自此以降子墨之士 紛然群起 舍著作而主刪選 至于陳明卿 鍾譚 險僻惟賊極矣... 然古今人眼孔不侔 故忘短取長而因於選家以成一部書 謂高出萬古者可乎...信筆不覺妄率極矣”

다음의 인용문은 권상신 사후(死後)에도 여전히 권상신을 그리워하는 홍한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산 아래 옛날에 艸南亭이 있었는데 장인어른 西漁의 별장이었다. 돌아가신지 십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별장은 한 씨의 소유가 되었다. 임진년(1832) 봄에 홀로 별장에 올라가니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의 행적도 없었으며 난간이 모두 무너져 있었다. 완연히 때 兎葵와 燕麥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아! 백거이의 風流嘉話가 인간 세상에 떨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잠깐 사이에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었구나. 끝나니 마치 봄날의 꿈이 흔적도 없고 사물을 보니 슬픔만 있도다. 완성된 글을 읊어 마침내 칠언 절구 네 편을 어진 조카 重吉에게 부친다⁵⁴).

1832년은 권상신이 죽은 지 8년이 지난 때이다. 홍한주는 권상신을 그리워하며 절구 4수를 짓는데 위의 인용문은 그 서문이다. 홍한주는 남산 아래에 위치한 권상신의 별장 초남정(艸南亭)에 홀로 찾아갔으나 초남정은 한씨의 소유가 되었고 권상신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상심한 홍한주는 세월의 무상함을 토로하며 권상신을 향한 그리움을 유로(流露)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홍한주와 권상신은 홍한주가 어린 시절부터 믿고 따랐던 각별한 관계였으며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밀접한 교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권상신은 홍한주에게 문학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시사 활동

본 절에서는 홍한주의 시사 활동을 서울·경기지역과 지방에서의 모습으로

54) 『海翁詩藁』 「壺谿集鈔」 <艸南亭有感 寄權姪重吉 思喆> “閣峰下 舊有艸南亭 卽外舅西漁公別野也 公沒不十年 亭爲韓氏所占 壬辰春 余嘗獨遊至亭上 見其局鑄甚嚴 悄無人行迹 而畧杓欄楯皆圯廢 宛有免葵燕麥之歎矣 嗟乎 白傅履道之風流嘉話 久落人間 轉眄桑海 了若春夢之無痕 覽物悽酸 永言成章 遂歌七言絕四篇 寄重吉賢姪足下”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홍한주의 시사활동에 대해서는 장효현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⁵⁵⁾ 본 절에서는 이를 수용하면서 홍한주가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한 시사와 더 나아가 지방에서 활동한 시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서울·경기지방에서의 시사 활동

조선후기에는 시인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동호인 집단과 유파가 매우 성행하였다. 홍한주 역시 노론계 문인으로서 여러 문인들과 교유하며 시사 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⁶⁾ 그는 『六美堂記』, 『錦溪筆談』을 저술한 운고(雲皐) 서유영(徐有英:1801~1874)과 가장 절친한 벗으로 교유하며⁵⁷⁾ 1832년에 남사(南社)⁵⁸⁾를 결성하여 1840년까지 활동하였다.⁵⁹⁾ 송주헌(宋柱獻), 홍재봉(洪在鳳), 홍우건(洪祐健), 이완희(李完熙) 등이 주로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오원(吳園), 총계당(叢桂堂), 금서헌(琴書軒) 등에 모여 시사를 진행하였다.⁶⁰⁾

남사의 활동 모습은 『南園唱酬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홍한주는 문집의 서문을 작성하였다.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사는 주로 문학적 기법을 성취하는 데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추구한 문학적 특징은, 전범적(典範的) 의고(擬古)의 태도를 배격하고 각 시대의 시문을 배우고자 하는 것, 원호문(元好問)과 양유정(楊維禎)의 시풍을 본받고자 하는 것, 『詩品』과 『文心雕龍』을 전범으로 삼고자 하는 것, 상양(商鞅)의 하법(荷法)과 동고(童孤)의 직필(直筆)을 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⁶¹⁾

55) 장효현, 「徐有英 文學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56)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99-169면 참조.

57) 장효현(1988)은 서유영의 가장 절친한 벗을 홍한주라고 하였으며 둘 사이의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시사활동 외에도 홍한주는 서유영의 『東遊記』의 跋文을 써주기도 하였으며(『海翁文藁』 卷9 <跋雲皐子東遊記>) 서유영을 위해 관직을 마련해 주기 위해 편지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58) 장효현(1988)은 南社의 명칭을 경기도 양주지방의 南園 혹은 南山의 '南'에서 취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59) 洪翰周, 『海翁存藁』, 「南園唱酬集」에 간지 별로 수록된 작품의 수는 다음과 같다.

60) 洪翰周, 『海翁存藁』, 「南園唱酬集」, <吳園小集> 3首, <叢桂堂小集>, <夜會叢桂堂共賦梅花> <琴書軒小集>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吳園은 <九日會吳氏園>를 통해, 시사에서 함께 교유하던 인물 중 오(吳) 씨 성을 지닌 인물의 정원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현호(玄湖)나 서호 주변에서도 모여 시사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61) 장효현, 위의 논문, 81-85면 참조.

당시 남사의 모습은 홍한주가 쓴 『智水拈筆』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홍한주는 “회포를 풀고 흥취를 즐기면서 남산 아래에서 날마다 서로 왕래하였다. 꽃을 평하고 새를 읊으며 구름을 시로 짓고 달을 아로새겨, 고시와 근체시 약간편을 모아 『南園唱酬集』이라 이름 하였다.”⁶²⁾라고 기록하고 있어, 남사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시는 남사의 시우(詩友)들이 연운(硯雲) 송주현의 산방(山房)에 모여 시를 지은 것이다. 남사의 활발했던 활동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硯雲山房小集- 연운의 산방에 작게 모이다.>⁶³⁾

山房留客四豪同	산방에 머무르는 객들은 四豪와 같고
宴坐修然燭跋紅	편안히 단정하게 앉아 있으며 촛불은 빛나는구나.
門街人歸殘雪在	문 밖에 사람들은 가 잔설만이 남아 있고
園庭鶴唳小樓空	정원의 학은 텅 빈 작은 누정에서 울어대는구나.
金爐煖擁烹茶火	금로는 따뜻함을 끌고 앉아 차를 달이지만
紙帳寒吹吼地風	지장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는구나.
愛殺硯雲行草好	연운의 멋진 행서와 초서가 매우 마음에 들어
哦詩揮灑錦箋中	시를 읊조리며 비단 종이에 글씨를 쓴다네.

홍한주는 산방에 모인 사우(社友)들을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의 맹상군(孟嘗君), 조(趙)나라의 평원군(平原君), 위(魏)나라의 신릉군(信陵君), 초(楚)나라의 춘신군(春申君)으로 빗대고 있다. 사호는 폭 넓게 교제하며 빈객을 맞아들이는 인물들로, 홍한주는 이들처럼 남사의 사우들이 자유롭게 교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산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경련에서는 추운 겨울, 차를 달이면서 따뜻함을 유지하려 하는데 종이 장막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다소 열악한 상황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홍한주는 송주현의 행서와 초서를 좋아하여, 시를 지으면서 비단 종이에 시를 적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

62) 洪翰周, 『智水拈筆』, <南園唱酬集>, “壬辰閏九月 余與徐雲臯子直 結詩社 排懷遣興 日相徵逐 於南山下 評花課鳥 裁雲鏤月 摠得古近體若干什 謂之南園唱酬集...” 번역은 김윤조·진재교 역 (2013)下, 374-377면 참고하였다.

63) 洪翰周, 『海翁存藁』, 『南園唱酬集』

준다. 비록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홍한주는 사우들과의 문학적 교류를 매우 즐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홍한주가 1837년 음력 정월에 남사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우들이 생각나서 시를 써서 화답해 주기를 구하는 내용이다.

<丁酉孟春旬後 大雪連日 孤坐無聊 忽憶社友 得二律一絕 呈雲臯, 石湖, 研雲乞和 其二- 정유년 음력 정월 열흘 후에 눈이 계속 내리고, 홀로 무료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社友들이 생각이나 읊시 2수와 절구 1수를 지어 운고, 석호, 연운에게 주어 화답해 주기를 구하다.>

憂患餘生四十春	우환이 있는 내 나이 40세에
多情還覺不貲身	생각을 하다 도리어 몸이 소중함을 깨닫는다네.
唐虞揖遜千年夢	요·순이 사양했던 것은 천년의 꿈이 되었고
秦漢文章異代塵	진·한의 문장도 다른 시대에서 먼지가 되었다네.
萬事爭從風燭轉	모든 일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갈수록 빨리 바뀌어 가는데
諸公何惜酒盃親	어찌하여 여러 공들은 술잔으로 친했던 것을 애석해 하는가.
如今同社俱漫浪	만일 지금 함께 모여 자유롭게 노닌다면
拋擲當時篋裡珍	당시 상자 속의 보물들을 버릴 것이라네.

홍한주는 마흔 살이 되어 문득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며 시간과 상황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흐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예전에 남사의 일원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닐었던 것을 애석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만일 지금 모여 자유롭게 노닐 수 있다면 예전에 함께 지었던 시들을 던져 버릴 것이라고 한다. 이는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예전의 시들은 의미가 퇴색되었으니 현재에 맞게 새롭게 시를 쓰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홍한주는 남사의 사우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도 홍한주는 낙사(洛社)에서 활동하였다. 낙사에서의 활동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남사의 시를 모아둔 『남원창수집』에 낙사의 언급이 있어 남사의 활동 시기인 1832년과 맞물리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그 후 1850년대 후반에 김영작(金永爵: 1802~1868)의 시를 통해 낙사의 활동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⁶⁴⁾

마지막으로 성동(城東)에 위치한 작옥(芍玉) 홍종응(洪鍾應: 1783~?)의 낙산초당에서 유래된 낙산시사(駱山詩社)는 김영작, 홍우건, 홍길주, 이만용, 정학연 등 많은 인물들이 참여한 시사이다.⁶⁵⁾ 활동 시기는 조두순의 <奉題駱山卷>이 1866년에 집필된 것을 통해 1860년대로 짐작할 수 있다. 홍한주는 <評閱李君實 鼎鎬 諸人駱山之什 遂次其第六韻題軸尾-이군실 정호 및 여러 사람들이 낙산의 시를 평하고 논하여, 마침내 그 여섯 번째 운에 차운하여 시축 말미에 시를 짓다>⁶⁶⁾라는 시에서 한가롭고 평온한 낙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나) 지방에서의 시사 활동

홍한주는 지방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과 문학적 교류를 맺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 시는 상산(尙山:지금의 경북 상주) 지역에서 교유했던 이순옥(李純屋)이라는 선비와 함께 지은 것이다.

<偕家兒及李純屋 冒雨訪姜懋伯 拈韻共賦- 집안 아이와 이순옥과 함께 비를 무릅쓰고 강무백을 방문하여 운을 뽑아 함께 시를 짓다.>

東城夏木盡干霄	동성의 여름 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雨打風披暑氣消	비바람 몰아치니 더운 기운이 사그라지는구나.
幽鳥嚶嚶啼野屋	앵앵거리는 그윽한 새는 들판의 집에서 울고
殘流決決度官橋	팔팔 흐르는 물은 관청의 다리를 건너가네.

64) 장효현(1998)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낙사가 1833년 기록 이후 1862년까지의 기록에서 보이는데, 이들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낙사가 일괄된 전통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南園唱酬集」에서 ‘洛社’가 언급되는 시는 다음과 같다. <送耽羅先生歸瀛州> “絶海先生出 無人識姓名 欲尋玄晏傳 來託汝南評 洛社詩篇在 山房講讀清 桂花猶未折 分付二難兄” 박상환, 『邵亭 金永爵의 漢詩와 詩社活動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80-91면 참조.

65) 장효현, 위의 논문, 88-89면 참조.

66) 洪翰周, 『海翁詩藁』, 「芸堂續集鈔」, <評閱李君實 鼎鎬 諸人駱山之什 遂次其第六韻題軸尾>, “簾紋如水畫欄低 欸欸猶聞夕鳥啼 山遣翠嵐偏入戶 月分清影半沈溪 幾憐老鶴滄洲夢 故與閒雲碧磻棲 烏石靈源非世外 桃花流水莫相迷”

不妨近局題襟會	가까운 이웃과 흥금을 털어 놓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何待阿戎折簡招	어찌하여 아옹의 초대 편지를 기다리겠는가.
文字從今河朔飲	문자를 지으며 지금부터 술자리를 마련할 것이니
牛鳴相去莫言遙	소 울음소리의 거리가 멀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모습을 매우 활기차게 묘사하고 있다. 경련에서 홍한주는 가까운 이웃과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죽림칠현의 왕옹(王戎)에게 초대받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고도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미련에서는 시를 지으면서 술을 마실 것이니 가까이 있는 이들은 와서 함께 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홍한주는 그 지역 인물들과 자유롭게 어울렸으며, 함께 시사 활동도 진행하였다. 1846년부터 1849년까지 경상북도 의성현감(義城縣監)으로 지낼 때는 ‘좌우사합(左右社合)’에서 활동하였으며, 1858년 경상도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역임하면서는 ‘상산운회(尙山韻會)’라는 시사에서 활동하였다. 홍한주는 시사 활동뿐만 아니라 각 시사의 문집을 발행하였고 문집의 서문을 작성하여 각 시회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左右社合集選序>와 <尙山韻會卷序>를 통해서 홍한주가 지방에서 활동한 시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내가 의성지역을 다스리며 몇 년 동안 詩로써 政事하였다. 의성의 아전들 중에 능히 시를 이해할 줄 아는 자 수 십 명을 취해 좌·우로 나누어 날마다 韻을 뽑아 시를 짓고 그 우열을 품평하며 순위를 매겼다. 그 승부를 보고서 진퇴하게 하였으며 끝나면, 상벌에 차이를 두었지만 잔치하며 즐기면서 하였다. 또 그들의 작품을 모아 가려내어 이름 짓기를 「左右社合詩選」이라고 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비록 부녀자들의 俚語라고 하더라도 가히 채집해야 한다. 어찌 다만 아전들의 평범한 시들만 채집해야 하는가?’ 翁은 따지지 못했다. 내가 마침내 그 말을 끌어 당겨 책 머리말에 기록한다. 무신년(1848) 중추일.⁶⁷⁾”

67) 『海翁存藁』 卷3 「序鈔」 <左右社合集選序> “芸堂翁治聞韶數年 又以詩爲政 取韶吏人能解聲詩者數十 分左右社 日出韻命題。品其優劣 次其甲乙 視其輸贏而進退焉 旣畢 賞罰有差而讌樂之 又聚其什而揀之 名曰左右社合集選 … 客曰夫子之詩 三百篇而經者也 子之詩 吏人之常調也

“내가 상산지역을 다스린 여러 해 동안, 기실에 재주 있고 뛰어난 선비인 李純屋이라는 자가 있었다. 크게 시사를 열어 노래를 부르며 일어나니 고을 선비의 성물을 해득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노닐며 왕성히 즐겼다. 편을 엮고 다양한 것을 묶어 하나의 큰 책을 완성하였다. ... 어떤 이가 나에게 따지며 말하기를, ‘이는 시사는 刀筆吏와 委巷人들이 어찌 혼잡하여 섞이도록 하십니까. 생각건대, 웅게 서는 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무릇 漢나라 栢梁의 시를 읽지 못하였는가? 존귀한 천자에서 천한 광대까지 이어받아 시를 완성했는데 과연 어긋나는가? 그 재주가 참되다면 비록 잡역부라 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그를 도와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 재주가 좋지 않다면 비록 귀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도필리이든 위항인이든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68)

<左右社會詩選序>에서 ‘부녀자들의 俚語라 하더라도 가히 채집해야 한다. 어찌 다만 아전들의 평범한 시들만 채집하겠는가?’라고 하였으며, <尙山韻會序>에서는 ‘그 재주가 참되다면 비록 잡역부라 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그를 도와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 재주가 좋지 않다면 비록 귀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刀筆吏이든 委巷人이든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홍한주가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주로 사대부 문인들과 활동하였던 것과 달리 지방에서는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다. 특히 홍한주가 외적인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시재(詩才)로써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은(69),

翁曰不然 三百篇所以能興觀羣怨者 多出於里巷謠謠 其人果皆鴻儒鉅公乎 如使今人而古人 人人皆可三百篇 若是者雖娘孀之俚語 有可採也 何但吏人之常調也哉 客不能難 翁遂撫其言而爲引 命書巷首 歲戊申之中秋也“

68) 『海翁文藁』卷3「序鈔」<尙山韻會卷序> “余治商山數歲 記室有才雋士李純屋者 大開吟社 唱起州人士解聲詩者 遊衍而嚮適焉 聯篇累什 爲一大卷... 諾而未施焉 有難於余者曰 是社也刀筆也委巷也 何其混而駁也 竊爲翁無取也 余笑曰子不見夫漢之栢梁之詩乎 天子之尊而承之以侏儒之賤 果何駁也 苟其才也 雖廝役吾當援以進也 其不才也 雖貴介吾不與焉 何間於刀筆委巷也...” 최은주, 「지방수령의 지역에서의 교유와 문자 수수-19세기 상주목사 홍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嶺南學』, 제2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 2012, 259면을 참조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필자의 번역으로 이루어졌다.

69) 최은주(2012)는, <尙山韻會序>를 인용하였으며 홍한주가 신분에 관계를 두지 않는 것은 서울 문단에서 다양한 변화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특이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영남 향촌에서 각계각층이 모인 시사 모임을 형성한 것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교유한 인물들이 지역 유림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홍한주가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개방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홍한주가 시사 활동을 할 때 참여하는 인물들의 신분에 차등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시재를 중시하여 어울렸다는 것은, 그만큼 시사가 활동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左右社會集選序>에서 ‘나누어 날마다 韻을 뽑아 시를 짓고 그 우열을 품평하며 순위를 매겼다...상벌을 두기도 하였지만 잔치하며 즐기면서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尙山韻會卷序>에서도 역시 ‘크게 시사를 열어 노래를 부르며 일어났으며...그들은 노닐며 왕성히 즐겼을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두 시사가 모두 서로 함께 어울리며 시 짓는 자체를 즐기는 모임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文集 概況과 「詠物集」

본 절에서는 3장 ‘학시 과정으로서의 영물시 특징’을 이해하는 발판으로서, 홍한주의 초기 시집인 「詠物集」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홍한주의 문집 전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海翁存藁』와 『海翁藁』 문집 개황⁷⁰⁾

표 1 『海翁存藁』와 『海翁藁』 문집 구성

『海翁存藁』		『海翁藁』
一		海翁詩藁 卷一
玄湖集		玄湖集鈔
覆甌初集		覆甌初集鈔
二		覆甌續集鈔

70) 한국고전종합DB의 해제, 진재교, 「<智水拈筆> 연구의 一端-작가 홍한주의 가문과 그의 삶」, 『漢文學報』, 제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및 김윤조, 「홍한주의 일기와 <智水拈筆> 저작」,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를 바탕으로 실제 문집을 검토하였다. 진재교(2005)는 홍한주의 삶과 관력을 중심에 두고, 각 시기에 편찬된 문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각 문집들의 특징을 밝혔으며, 김윤조(2008)는 「玄湖集」과 「玄湖集鈔」의 작품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홍한주 시를 연구하는 데에는 장서각본이 기본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覆瓿續集		覆瓿三集鈔
	三集		湖海集鈔[上]
三		卷二	
	湖海集		湖海集鈔[下]
	詠物集		詠物集鈔
四			嶺表集鈔
	嶺表集		壺谿集鈔
	壺谿集		南園唱酬集鈔[上]
	銀川集	卷三	
	東陽集		南園唱酬集鈔[下]
五			銀川集鈔
	南園唱酬集	卷四	
六			東陽集鈔
	芸堂集		芸堂初集鈔
七		卷五	
	聞部集		芸堂二集鈔
	雙松館集		聞韶集鈔
八			雙松館集鈔[上]
	芸堂雜文	卷六	
九			雙松館集鈔[下]
	芸堂雜文		芸堂續集鈔
十			商山集鈔
	芸堂雜文		山陽集鈔
			智水集鈔
			錦上集鈔
			朱溪紀遊集
		海翁文藁 卷一	
			書鈔
		卷二	
			書鈔
		卷三	
			序鈔
		卷四	
			記鈔
		卷五	
			題跋襍著鈔
		卷六	
			祭文哀辭鈔
			祈雨文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⁷¹⁾, 『海翁存藁』와 『海翁藁』는 여러 문집들로 구

71) 문집명은 60세 이전은 『海翁存藁』를 따르며 60세 이후는 『海翁藁』를 따른다. 또한 『海翁藁』의 경우 海翁詩藁日錄과 문집의 표지에는 ‘集鈔’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문집 내지에는 ‘集鈔’

성되어 있다. 『海翁存藁』와 『海翁藁』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 우선, 문집의 형식에서 『海翁存藁』는 「○○集」으로 되어 있고 『海翁藁』는 「○○集鈔」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海翁藁』가 저본을 바탕으로 선집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⁷²⁾ 다음으로 문집의 수에 있어서 『海翁藁』가 『海翁存藁』보다 더 많은 하위 문집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문집은 형식적, 구성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문집에 적힌 간지와 수록된 작품수를 통해 문집의 차이점과 특징을 시와 문으로 나눠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2 『海翁存藁』와 『海翁藁』에 수록된 시집의 특징

문집명	『海翁存藁』 수록 편수	『海翁藁』 수록 편수	시기	비고
「玄湖集」	117	22	1812~1814	
「覆瓿初集」	87	16	1812~1813	
「覆瓿續集」	198	103	1815~1817	
「覆瓿三集」	114	77	1820~1827	
「湖海集」	140	44/29	1815~1817	
「詠物集」	80	24	1812 1814~1815 1826~1832	
「嶺表集」	91	88	1824 1826~1830	표지는 嶺表集으로 되어 있지만 속지에는 嶺表初集으로 적혀 있다.
「壺谿集」	83	79	1831~1832	
「南園唱酬集」	序1편, 256		1834, 1836 1839	
「芸堂初集」	174/56		1833 1836~1840	
「芸堂二集」	58	30	1844~1846	
「銀川集」	28	28	?~ 1842	
「東陽集」	69	77	1842~1843	

의 형식을 띠고 있어, 이를 따라 표기한다.

72) 김윤조, 위의 논문, 916면 참조.

「聞韶集」	58	56	1846~1849	표지에는 聞韶集으로 되어 있지만 속지는 嶺表二集으로 적혀 있다. 聞韶가 경상북도 의성의 별칭으로 이는 「嶺表集」의 속집으로 볼 수 있다.
「雙松館集」	172	117	1850~1854	
「芸堂續集」	—	34	1855~1858	
「尙山集鈔」	—	95	1858~1860	
「山陽集鈔」	—	7	1862	
「智水集鈔」	—	28	1862~1863	
「錦上集鈔」	—	7	1863~1864	
「朱溪紀遊集」	—	20		

<표 2>는 『海翁藁』와 『海翁存藁』를 시집 중심으로 본 것이다. 문집은 시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집명은 대개 홍한주가 관직을 수행한 지역명 혹은 자신의 당호(堂號)를 중심으로 명칭을 붙인 특징이 있다. 이외의 문집명은 겸사 혹은 시의 주제로 삼고 있다.⁷³⁾

·지역명 중심의 문집

「玄湖集」: 서호(西湖) 지역을 이르는 말

「嶺表集」: 영남지방을 가리키는 말이며, 홍한주는 경상북도 개령(開寧: 오늘날의 김천)에서 현감(縣監)으로 재직하였다.

「銀川集」: 황해도 배천(白川)의 별칭으로, 홍한주는 배천군수로 재직하였다.

「東陽集」: 홍한주가 유배간 황해도의 지명이다.

「聞韶集」: 문소는 경상북도 의성(義城)의 옛 지명으로, 홍한주가 의성현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海翁存藁』에 표지는 「聞韶集」으로 되어 있지만, 내지에는 「嶺表二集」으로 되어 있다. 「嶺表集」의 속집으로 볼 수 있다.

「尙山集」: 상산은 전라북도 상주(尙州)의 옛 지명으로, 홍한주가 상주목사를 재직하는 동안 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山陽集」: 산양은 전라남도 보성(寶城)의 옛 지명으로, 홍한주가 보성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73) 진재교, 위의 논문, 335-342면을 참조하여 문집명을 살펴보았다.

「錦上集」: 전라남도 나주(羅州)에서 지내던 동안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⁷⁴⁾
서유영에게 보내는 시, 농소(農蘇)라는 인물과⁷⁵⁾ 교유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朱溪紀遊集」: 전라북도 무주(茂朱)를 지칭하는 지역이다. 무주에 위치한 환수정(喚睡亭), 적상산(赤裳山)에서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당호 중심으로 된 문집명

「壺谿集」: 호계산방(壺谿山房)으로 지칭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⁷⁶⁾

「芸堂初集」, 「芸堂二集」, 「芸堂續集」

「雙松館集」: 양주(楊州)에 위치한 집으로 볼 수 있다.⁷⁷⁾

「智水集」: 지수는 전라남도 나주목에 있는 지도(智島)에 유배된 기간 동안 살던 홍한주 집의 호(號)이다.

·기타

「覆瓿初集」, 「覆瓿續集」, 「覆瓿三集」: 겸사의 의미를 따서 지은 문집이다.

「湖海集」: 충청도로 내려가는 여정이 담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호해(湖海)는 ‘드넓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詠物集」: ‘영물시’ 주제만을 모아둔 문집이다.

「南園唱酬集」: 남사(南社)의 기록을 모아둔 문집이다.

다음으로 각 문집에 수록된 작품 편수를 살펴보면, 『海翁藁』는 鈔集이기 때문에 『海翁存藁』에 더 많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海翁存藁』에는 홍한주 58세 때인 1855년부터의 문집 「芸堂續集鈔」, 「尙山集鈔」, 「山陽集鈔」, 「智水集鈔」, 「錦上集鈔」, 「朱溪紀遊集」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즉 『海翁存藁』는 60대 이전의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⁷⁸⁾, 『海翁藁』는 비록 초집으로 그 양은 현저하게 적지만 홍한주의 10대부터 만년까지의 작품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74) 한국고전번역DB 해제에 따르면, 홍한주는 전라남도 나주에 속해 있는 금천(錦川)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75) 농소(農蘇)라는 인물은 친척인 권형규(權衡圭)로 짐작할 수 있다.

76) 『海翁文藁』, 「題跋雜著鈔」, <蘇山老人壽語帖跋>, “...三子乃其同社友達城徐有奭子直 唐城洪在鳳聖用而余不佞與其一焉云爾 歲癸巳嘉平 永嘉洪翰周憲卿 書于壺谿山房.”

77) 장효현, 위의 논문, 73-74면 참조.

78) 진재교, 위의 논문, 326면에서 “장서각 『海翁存藁』는 홍한주가 만년에 지은 「尙山集」·「山陽集」·「錦上集」·「朱溪紀遊集」과 산문작품 일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사후에 정리된 것이 아니라 60대 이전에 정리된 듯하다.” 라고 문집 구성에 논의한 바 있다.

다음으로 문(文)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문은 『海翁藁』가 『海翁存藁』보다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실제 문집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이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한다.⁷⁹⁾

표 3 『海翁存藁』와 『海翁藁』에 수록된 문의 수량 차이

제재	『海翁存藁』	『海翁藁』	공통된 편 수
書	49	81	
序	18	16	15
記	9	7	7
題跋	14	15	11
祭文	9	11	6
祈雨	4	4	3
총	103	134	

문의 총 편수는 실제로 『海翁藁』가 더 많지만 각 제재별 편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書), 제발(題跋), 제문(祭文)은 『海翁藁』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서(序), 기(記)는 『海翁存藁』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편지에서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海翁藁』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편지들이 『海翁存藁』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며, 서, 기, 제발, 제문, 기우에서도 공통된 편을 제외한 나머지가 각 문집에 있기 때문에, 문(文)을 살펴볼 때에는 반드시 『海翁藁』와 『海翁存藁』 두 문집을 살펴보아야 한다.

2) 「詠物集」 구성 및 소재 분석

본고의 목적이 영물시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라는 점에서 「詠物集」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3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海翁存藁』에 실린 「詠物集」과 『海翁藁』에 실린 「詠物集鈔」에 수록된 작품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⁸⁰⁾

79) 『海翁存藁』에 수록된 文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芸堂雜文」은 제재의 기준 없이 산발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海翁藁』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海翁藁』의 제재별 기준(書, 序, 記, 題跋, 祭文, 祈雨)을 중심으로 「芸堂雜文」에 수록된 작품들을 정리하였다.

80) 각 문집에 수록된 순서로 기재하였으며, 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표 4 『海翁存藁』「詠物集」와 『海翁藁』「詠物集鈔」에 수록된 영물시.

(『海翁存藁』「詠物集」에서 진하게 표시한 것은 중복된 작품이다.)

『海翁存藁』「詠物集」					『海翁藁』「詠物集鈔」				
漁燈	蠶	雜卉詩	蒼蠅	蒼蠅	蒼蠅	蜘蛛網	鷄	黃蝶	蝴蝶
蜘蛛網	鷄	鵲	黃蝶	蝴蝶	燈火	笛	秋鴈	琴	芭蕉
蝴蝶	秋果 贈人	風	畫竹 屏風	畫竹 屏風	影	楊柳	樵夫	簾	簾
燈火	燈火	笛	秋鴈	曉色	屏風	綠陰	竹夫人	塵	鳳仙花
琴	琴	贈琴兒	窓	風磬	蛙	海棠	月李花	玉簪花	
芭蕉	老槐	蠟燭	石筆筒	墨竹 屏風					
影	城上 老松	庭鶴	楊柳	漁父					
白鷺	樵夫	牧童	釣翁	茶					
海棠	梅花	雪	雪	杏花					
菊花	牧丹花	詩	鷓鴣	聽琴					
상	梅	梅	梅	杏花					
梅花	聽筊	對酒	烟	櫻花					
簾	簾	屏風	蜂	綠陰					
竹夫人	塵	霧	鳳仙花	扇					
摺疊扇	蛙	落葉	竹	園					
海棠	月李花 81)	鳳仙花	玉簪花	玉簪花					

81) 「詠物集鈔」에 수록된 <月季花> 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季’를 ‘李’로 잘못 쓴 듯하다.

위의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詠物集」과 「詠物集鈔」에는 각각 80首와 24首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詠物集鈔」는 초집(鈔集)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詠物集鈔」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詠物集」에도 수록되어 있고 수록된 순서 역시 「詠物集」과 동일하다. 따라서 『海翁存藁』의 「詠物集」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詠物集」에 적혀 있는 간지(干支)를 바탕으로 영물시 창작 시기를 살펴보면, 임신년(1812년), 갑술년(1814년), 을해년(1815년), 병술년(1826년), 임진년(1832년)이며 각 연도에 창작한 작품의 수는 임신년 1首, 갑술년 55首, 을해년 19首, 병술년 1首, 임진년 4首이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海翁存藁』 「詠物集」 연도별 수록 작품 수

연도	임신년(1812)	갑술년(1814)	을해년(1815)	병술년(1826)	임진년(1832)
작품 수	1	55	19	1	4

각 시기 홍한주의 나이는 15세, 17세, 18세, 29세, 35세로 병술년과 임진년에 창작된 5首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대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7세에는 55首를 창작하여 창작 시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詠物集」에 채택된 소재들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 화훼류: 雜卉詩, 芭蕉, 老槐, 城上老松, 楊柳, 海棠(2), 梅花(4), 杏花(2), 菊花, 牡丹花, 櫻桃, 鳳仙花(2), 月季花, 玉簪花(2)
- 조류 및 곤충: 蠶, 蒼蠅(2), 鷄, 鵲, 黃蝶, 蝴蝶(2), 秋鴈, 庭鶴, 白鷺, 鷓鴣, 蜂, 蛙
- 사람: 漁父, 樵夫, 牧童, 釣翁
- 자연물: 蜘蛛網, 塵, 落葉, 園
- 자연현상: 風, 曉色, 影, 雪(2), 烟, 綠陰, 霧
- 일상소품: 漁燈, 花竹屏風(2), 笛, 琴(2), 窓, 風磬, 蠟燭, 石筆筒, 墨竹屏風, 상, 簷, 簾, 屏風, 竹夫人, 扇, 摺疊扇

·기타: 秋果贈人, 贈琴兒, 茶, 詩, 聽琴, 聽筳, 對酒,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홍한주는 영물시의 주제를 특정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화훼류, 조류 및 곤충, 사람, 자연물, 자연현상, 일상소품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게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海翁存藁』 「詠物集」을 중심으로 홍한주 영물시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3 장 學詩 과정으로서의 영물시 특징

본 장에서는 학시 과정으로서 홍한주 영물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홍한주는 육경 중에서도 『詩經』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는 공자가 『詩經』을 말한 사실과 맹자가 『書經』을 말한 사실을 비교하여 성인과 현인의 차이로까지 언급하였다. 다음의 인용문은 홍한주의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공자는 『詩經』을 잘 말하였고 맹자는 『書經』을 잘 말하였으니, 성인과 현인의 의사가 같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가? ... 그러나 그가 반복하여 영탄한 것은 『詩經』에 더욱 많다. 그러므로 ‘답장을 마주하는 가르침’과 ‘興·觀·群·怨’의 훈계가 문인과 가정에 누차 베풀어졌다. 육경 가운데 사람을 가장 잘 감화·계발하고 흥기시킬 수 있는 것은 『詩經』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으므로, 성인도 이로써 고무하고 격려한 것이다...”⁸²⁾

위의 인용문은 『智水拈筆』 <孔子善言詩>기사이다. 홍한주는 모두(冒頭)에서 ‘공자가 『詩經』을 잘 말했고, 맹자가 『書經』을 잘 말한 사실이 성인과 현인의 차이인가’라며 의문을 표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에서 ‘『詩經』이 육경 가운데 사람을 가장 잘 감발, 흥기시킨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결국 『詩經』이 『書經』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고 이는 성인과 현인의 차이라는 것이다. 홍한주가 이토록 『詩經』을 중시한 이유는 『論語』에서 공자가 언급한 ‘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답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⁸³⁾와 ‘興觀群怨’⁸⁴⁾라는 『詩經』의 중요성을 홍한주가 그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⁸⁵⁾

82) 洪翰周, 『智水拈筆』, <孔子善言詩>, “孔子善言詩 孟子善言書 聖賢之意思 不同而然耶 ... 而其反覆咏歎 尤多於詩 故正牆面之教 與興觀群怨之訓 屢及於門人家 六經中最能感發興起人者 莫近於詩 故聖人 亦徒以鼓動之也...” 김윤조·진재교 역(2013) 上, 135-136면 참고.

83) 『論語』, 「陽貨」, “子謂伯魚曰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

84) 『論語』, 「陽貨」,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85) 洪翰周, 『海翁文藁』, 「序」, <左右社合詩選序> “...子曰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可以觀可以羣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夫詩之道 至於事父事君 而有足以興觀羣怨 則若是者雖爲政於天下

또한 홍한주는 사물에 대한 묘사가 『詩經』보다 오묘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각각의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새가 嚶嚶우네’와 ‘사슴이 呦呦우네’ 같은 것은 새나 사슴의 울음소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날짐승과 길짐승의 소리로는 적당하지 않다. 저구가 ‘關關’하고 울고, 꿩꼬리가 ‘綿蠻’하고 우는 것은 비록 다른 새에게 옮겨 사용하더라도 괜찮다.”⁸⁶⁾

이와 같이 홍한주는 『詩經』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자 역시 『論語』에서 여러 번 『詩經』을 언급하며 강조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항은 백어에게 아버지인 공자로부터 다른 말을 들은 것이 있는지 묻는다. 백어는 진항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없도다. 일찍이 혼자 서 계시거늘 내가 딸을 지나갔는데 나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시를 배웠느냐(學詩)?’라고 하셔서 대답하기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하겠노라’ 하시므로 내가 물러나와 시를 배웠노라.”⁸⁷⁾

이 외에도 공자는 시 배우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를 배우게 되면 얻게 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를 배우면 의지를 흥기시킬 수 있고, 득실을 관찰할 수 있으며, 무리를 지을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아버지를 섬길 수 있으며 멀리서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게 된다.”⁸⁸⁾

國家可也...” 이와 같이 홍한주는, 공자가 말한 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86) 洪翰周, 『智水拈筆』, <狀物之妙>, “...如鳥鳴嚶嚶 悠悠鹿鳴 當爲鳥與鹿之鳴 不當爲他禽獸聲也 如雉鳩之關關 黃鳥之綿蠻 雖移用於鳥雀亦可也...” 김윤조·진재교 역 下(2013) 85-90면을 참고하였다.

87) 『論語』, 「季氏」, “陳亢 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88) 『論語』, 「陽貨」,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본고에서는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라는 말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이 말은 시를 배우면 여러 사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으로 사물을 알아야 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홍한주 역시 영물(詠物)을 강조하였으며 초기 문학 활동 시기에 영물시에 주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홍한주가 『論語』에서, 말하고 있는 학시(學詩)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학시(學詩)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홍한주는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영물(詠物)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영물시 창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본고가 홍한주의 「詠物集」을 검토한 결과 그 특징을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한 찌푸린 묘사’, ‘전고 사용을 통한 사물의 일반화’, ‘폭넓은 선택과 그 표현’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다음 절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사물 탐구를 통한 찌푸린 묘사

영물시는 사물을 노래하는 시로, 사물을 배우는 데 좋은 요건을 지닌 주제로 볼 수 있다. 이를 영물시의 정의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의 사물을 명하여 제목으로 삼고, 그 사물의 성향과 색상 및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一句一篇에서 묘사·형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물들은 끼어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詠物이라고 하는 것이다.”⁸⁹⁾

위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영물시는 하나의 사물을 대상으로 삼고, 사물의 외형에서 드러나는 소리, 색깔 등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한편의 시에 묘사하고 형용하는 것이다.

89) 權純九, 『中東詠物詩選』 <序>, “...命一物以爲題 其聲香色相 及一切可道語者 必描寫形容於一句一篇之中 而不攙入他事 故曰詠物...”

여기서, 대상으로 삼은 사물을 톺아보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속성을 자세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영물시를 창작한 홍한주가 사물의 특징을 어떻게 관찰·묘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蠶>

누에

憐爾微形似步屈	보잘 것 없는 너의 모양이 보굴과 같아 가련하나
經綸滿腹復誰知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포부가 가득 차 있음을 누가 알리오.
巧如鳥鵲能棲木	재주는 까치가 둥지를 잘 트는 것과 같고
才勝蜘蛛苦產絲	뛰어난 재주는 거미가 고통스럽게 실을 짜는 것 같구나.
今日三眠農事畢	오늘 세 번 자고 농사일을 마치니
明朝勤織女工宜	내일 아침에는 베 짜는 여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겠구나.
坐聽食葉聲乾處	앉아서 바스락 바스락 뽕잎 갹아먹는 소리 들으니
尙想金箋下筆時	더욱 金箋紙에 글을 쓰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이 시는 누에를 읊고 있다. 누에는 8cm가 가장 크게 자라나는 미물(微物)이다. 홍한주는 누에의 형상을 보잘 것 없으며, 누에와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보굴과 비교하며 가련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미물인 누에가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둥지를 잘 트는 까치와⁹⁰⁾ 거미줄을 짜는 거미의 재주와 비견하며 누에의 재주를 높이 산다. 홍한주는 누에의 외형과 물성을 보굴, 까치, 거미와 같이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누에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누에가 세 번 자고 일어나는 성질을 말하며, 잠을 잔 후에 농사일을 마친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자들은 베 짜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누에들이 뽕아낸 실로 베를 짜는 것이다. 미련에서 홍한주는 뽕잎을 갹아먹는 누에 소리를 들으면서, 한 때 누에가 뽕아낸 명주실을 다는 금전지에 글을 쓰던 때를 떠올리며

90) 『詩經』, 「召南」, <維鵲>註에 “鵲 善爲巢 其巢 最爲完固”라고 하였다.

회상한다. 흥한주는 누에의 외형, 물성의 탐구를 통해, 누에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매우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梅>

매화

玉立天然月欲斜	꽃꽂이 서 있는 매화에 달은 기울어지려 하고
幽香暗淡返魂多	향기 퍼지니 많은 영혼을 불러들이는구나.
縱護裙腰粉不掃	비록 치마허리를 보호하려 해도 분가루는 떨어지지 않는데
其如殘藥落來何	남은 꽃술들과 같으니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가.

이 시는 매화를 읊고 있다. 1,2구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꽃꽂이처럼 서 있는 매화에 달빛이 비추는 모습을 묘사하며 매화의 좋은 향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한다. 3구에서는 치마폭에 수놓인 자수(刺繡)를 분가루라고 표현하며,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4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분가루를 남은 꽃술이라고 말하며 어디에서 떨어져 치마폭에 내려와 앉았는지를 묻는다. 즉 분가루는 매화로, 흥한주는 매화라는 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白鷺>

백로

衣裳皜素雪中秋	가을에 눈이 내린 듯한 하얀 옷에
拳足幽眠在遠洲	먼 물가에서 발 구부리고 졸고 있구나.
好得西風求儷去	즐겁게 서풍을 따라 짝을 구해 떠나고
閑從暮雨捕魚謀	한가로이 저녁 비 따라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구나.
繞沙圓聚沙還愧	모래밭에 둥그랗게 모이니 모래가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向月群飛月亦羞	무리지어 달을 향해 날아가니 달 또한 부끄러워하는구나.
最是孤高塵外物	이것이 세상 밖 가장 孤高한 동물이니
吾將伴汝事宜休	내가 너와 벗하면 일이 마땅히 잘 풀리겠지.

이 시는 해오라기의 동적인 모습보다는 시각적인 색상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백로를 묘사하고 있다. 수련에서 백로의 외형을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옷

을 입고 있다고 말하며, 맑고 티 없이 깨끗한 빛을 지니고 있음을 묘사한다. 백로가 발을 구부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황을 포착하고 더 나아가 함련에서는 백로가 짝을 구하여 바람을 따라 떠나가는 모습과 물고기를 잡는 생생한 모습을 말하였다. 경련에서는 무리 짓고 있는 백로들의 모습으로 인해 모래와 달이 부끄러워한다고 표현한다. 모래와 달도 매우 하얀 빛을 띠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흰 백로가 무리를 지어 흰빛이 더욱 발산하여 모래와 달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더 나아가 흥한주는 하얀 백로의 흰 이미지를 고고(孤高)한 동물로 격상시키고 있다.

<黃蝶 其二>

노랑나비 그 두 번째.

拂綠穿紅只嗅香	푸른 잎을 떨쳐 붉은색 속으로 향기만 맡고
探春不是賦羣芳	봄을 찾으나 이는 온갖 꽃을 이야기함이 아니라네.
魂隨半夜莊生夢	혼은 한밤중에 장자의 꿈을 따라다니고
粉撲東隣宋玉墻	분을 바르니 송옥의 담장 동쪽 미인 같구나.
簾幙爭飛成巧舞	주렴과 장막을 다투며 나는 것이 교태롭게 춤추는 듯하네.
池塘雙度映鮮妝	연못을 쌍으로 날며 고운 화장을 비추어 본다네.
狂蜂未解風流韻	미치광이 벌은 풍류의 운치를 알지 못하여
徒採山花貯蜜房	다만 산에 핀 꽃을 캐어 벌집에 저장하기만 하는구나.

이 시는 노랑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나비가 붉은 꽃의 향기를 맡으며 꽃들을 찾아 날아다니는 상황을 보여주지만, 모든 꽃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나비가 화려하고 향기가 진한 꽃들만 찾아다니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련에서는 나비가 되어 즐겁게 날아다니는 장자와 어울리며 노니는 나비의 모습과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송옥의 <호색부>를 인용하며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련에서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교태롭게 춤을 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연못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물가에 화장을 비추어 본다고 표현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나비가 아닌 벌을 보면서, 풍류의 운치를 알지 못한 채 꿀을 벌집에 저장하기만 한다고 어리석고 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흥한주는 나비가 봄을 즐기기는 모습과 풍류를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하는 둔한 벌을 대조시키며 나비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雪>

눈

繽紛飛絮重於霞
曉色□□不辨家
一夜恍如開玉界
滿庭渾似落梅花
引風正擁藍關馬
取水宜煎學士茶
座客莫言山盡白
蒼茫凍樹有鸛鴒

떠다니는 버들개지는 안개보다 무겁고
새벽빛이 □□하여 집을 찾을 수 없구나.
한 밤의 황홀한 모습에 신선 세계가 열린 듯하고
뜰에 가득한 모습은 매화꽃이 떨어진 듯하구나.
눈이 바람을 끌어들이면 남관의 말을 막을 수 있고
눈이 물을 취하면 학사의 차를 끓이기에 마땅하네.
앉아 있는 객은 산이 온통 하얗다 말하지 말지어다
창망히 언 나무에도 까만 까마귀가 날아다닌다네.

이 시는 눈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용하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흥한주는 눈을 떠다니는 버들개지로 비유하는데, 버들개지 역시 흰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눈과의 호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눈 내린 모습을 신선 세계와 매화꽃으로 표현하며, 경이롭고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흥한주는 실제 뚜렷한 모양이 없는 눈을 떠다니는 버들개지, 신선 세계, 매화꽃으로 비유하며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한유의 시를 인용하며, 이와 대구를 이뤄 눈이 물을 만나게 되면 차를 끓이기에 마땅하다고 말한다. 이는 눈이 바람과 물이라는 다른 속성을 가진 사물과 접촉한 후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흥한주는 눈으로 뒤덮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하얗다고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 이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에 까마귀가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흥한주는 눈에 한정되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넓게 조망하며 관찰한 것이다.

<竹>

대나무

惹月凝烟便過牆	달빛에 안개가 일어나 문득 담장을 지나니
數枝低亞蔭空廊	못 가지가 그늘진 빈 행랑에 늘어져 있구나.
新篁盡是青青笋	새로 난 대나무가 모두 푸르고 푸른 죽순이고
舊蘚猶憐拂拂霜	저버린 낙엽은 서리에 나부끼어 오히려 가련하구나.
半夜秋風聲欲動	한 밤 중 가을바람 불어와 움직이고자 하는 소리 들리고
一庭疎雨氣先涼	뜰에 가랑비 내리니 공기가 서늘해지는구나.
書生習氣元多俗	서생의 버릇은 원래 세속에서 많이 생기니
故種此君近我床	대나무를 심어 나의 평상에 가까이 놓는다네.

이 시는 대나무가 시간적인 배경과 어우러지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달이 뜬 늦은 저녁, 무수히 많은 대나무는 텅 비어 있는 행랑에 늘어져 있다. 함련에서는 새로 막 자라난 대나무와 떨어진 낙엽을 대조시키며 푸른 죽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곧 밤이 되어 바람이 불고, 가랑비가 내리면서 대나무가 있는 곳에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에 대나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공기는 서늘해지면서 텅 빈 행랑은 더욱 쓸쓸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홍한주는 수련부터 경련까지 시간과 자연 배경과 어우러지는 대나무를 묘사하고 미련에서 대나무의 지조, 절개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摺疊扇>

접부채

抱得水姿在草堂	얼음 같은 자태를 하고 초당에 있으니
此君原是喜悠楊	대나무는 원래 버드나무를 좋아한다네.
衆技并合龍腰細	못 가지들이 어우러지니 용의 허리인 듯 세밀하고
千幹齊開鳳翼長	수많은 줄기 가지런히 놓여 있으니 봉황의 날개인 듯 길다네.
爲我周旋能禦熱	나를 위해 두루 열을 막아주고
愛渠舒卷自通涼	펼쳐지고 말리는 것이 어여쁘니 절로 시원해지는구나..

來風遮日便襟袖 차일에 바람이 불어오니 옷깃과 소매가 편해지고
欲伴孤筇訪醉鄉 외로운 지팡이와 벗하며 별천지를 찾고 싶다네.

이 시는 접부채에 대해 읊고 있다. 접부채의 모습을 얼음 같은 자태라고 한 것은, 접부채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 주는 기능을 인식하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함련에서는 부챗살을 용의 허리, 봉황의 날개로 비유하며 세밀하고 가지런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여름날 더위를 막아주는 부채의 기능을, 접고 펴야하는 접부채를 통해 말하고 있다. 수련에서 경련까지 부채의 물상과 물성을 통해 여름철 바람을 일으키며 시원하게 해주는 접부채에 대해 묘사하였다. 그러나 미련에서는 더 이상 부채가 필요 없어진 계절이 와서 부채를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 옷깃과 소매가 편해졌다고 말하며, 지팡이를 짚으며 별천지를 찾고 싶다고 말한다. 즉 흥한주는 각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표현한 것이다.

사물은 화자에 따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 물상을 직관적으로 보는지, 물성을 관조하는지, 사물에 감정을 의탁하는지에 따라 사물은 다르게 비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⁹¹⁾ 본 절에서 살펴본 흥한주의 영물시는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영물한 것들로, 대상으로 삼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련에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사물 관찰을 통해 자아낸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 흥한주가 사물에 가탁하여 드러낸 신의(申意)로는 볼 수 없다. 즉 흥한주는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물에 가탁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영물한 것이 아닌, 사물을 관찰하고 특징을 묘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영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전고 사용을 통한 사물의 일반화

사물에는 고정 관념화된 의미가 있다. 송백(松柏)이 지조, 절개를 의미하는

91) 김원준, 「영물시를 통해 본 원천석의 의식적 면모」, 『인문연구』 제5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201-215면 참조.

것과 도리(桃李)가 벼슬의 영화(榮華)나 선비를 나타내는 것, 기린·봉황·거북·용이 임금과 태평성세를 의미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⁹²⁾

홍한주는 영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정 관념화된 이미지로 사물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자신이 바라본 사물을 형용·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삼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관념화된 이미지로 사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시 과정으로서 사물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시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雜卉詩>

잡훼시

雜花兼雜草	여러 꽃과 여러 풀에
蜂蝶幾來喧	벌과 나비가 얼마나 와서 떠들썩하게 했는가.
三經松猶老	삼경의 소나무는 오히려 늙었으나
東籬菊欲繁	동쪽 울타리에 핀 국화는 무성하네.
薔薇亦已盡	장미는 또한 벌써 떨어졌으나
芍藥可能存	작약은 살아남을 수 있다네.
向日傾秋霍	해바라기는 가을바람에 빨리 기울어지고
忘憂種夏萱	망우초는 여름에 오수유를 심네.
冬靑霜意重	사철나무는 서리 맞아도 굳센 의지가 더해지고
夜合月華昏	야합은 달뜨면 잎 다물어져 어두워지네.
白雪堆蘆□	배꽃은 갈대□에 쌓이고
黃金映橘園	버들은 굴밭을 비추네.
芙蓉惜墜粉	연꽃은 꽃잎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桃李愛無言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하지 않음을 아낀다네.
桂樹空飄子	계수나무는 공허하게 씨를 날리고
梅香暗返魂	매화 향기는 몰래 혼을 불러오네.
蘭如林處士	난초는 숲 속의 처사와 같고
蕉慙雨翻盆	파초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동이로 퍼붓듯하네.

92) 이종건, 「詠物詩考」, 『사림어문연구』 제1호,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림어문학회, 15-16면 참조.

瓊藥通仙迹	옥 같은 꽃술은 신선의 자취와 통하고
竹梢見淚痕	대나무 끝에 눈물의 흔적을 보았다네.
海棠怨杜子	해당화는 두보를 원망하고
宮草恨王孫	궁 안의 풀은 왕손을 한스러워하네.
紫綠萬千狀	붉은색, 푸른색 온갖 형상들이
都添雨露恩	모두 우로의 은혜를 받았다네.

이 시는 각 구마다 사물의 이름을 언급하는 형태인 연아체(演雅體)로 여러 화훼를 읊고 있다. 등장하는 화훼는 총 20가지로, 소나무, 국화, 장미, 작약, 해바라기, 망우초, 사철나무, 야합, 배꽃, 버들, 연꽃,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계수나무, 매화, 난초, 파초, 꽃술, 대나무, 해당화, 궁초이다. 홍한주는 각 화훼들이 지니고 있는 전고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사물이 지니고 있는 관념화된 이미지로 영물하고 하였다.

<蒼蠅 二首>

쉬파리 그 두 번째

化於榆葉與茅根	느릅나무 잎과 뿌리 사이에서에서 부화하고
盡日營營撲酒樽	진종일 앵앵거리며 술통을 두드리고 있구나.
揮塵霎時飛去集	먼지 터는 사이 가랑비가 내리는 때에 모여 날아가
招朋頃刻聚來喧	친구를 불러 잠깐 사이에 모여 와 시끄럽게도 하는구나.
尋香逐氣還求飽	향기 찾고 냄새 쫓으니 배부름을 구하러 돌아왔다가
溺水投羹乃喪魂	물과 국에 빠져서 마침내 혼을 잃기도 하는구나.
堪比趨官貪利者	이익을 탐하고 관직을 쫓는 자들과 견줄만 하니
同聲相應爾何言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하니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창승(蒼蠅)은 『詩經』에서부터 간신, 참언자로 표현되어 왔으며⁹³⁾ 구양수(歐陽脩)의 <憎蒼蠅賦>에서는 ‘마땅히 너로 참소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풍자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니 정말로 가증스럽고 밉구나.’⁹⁴⁾라고 하였다. 과

93) 『詩經』, <青蠅>, “營營青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

리는 중국의 고대 시기부터 부정적인 사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시에서 읊고 있는 쉬파리 역시 기존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파리의 모습과 동일선상에서 표현되고 있다. 우선 수련에서 파리가 느릅나무의 잎과 뿌리 사이에서 부화한다고 말한다. 느릅나무는 주로 물이 있는 계곡에서 자라기 때문에, 습한 곳에서 부화하는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화한 쉬파리는 하루 종일 앵앵거리면서 술통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앵앵거리는 의성어는 『詩經』에 나오는 말로, ‘왕래하며 나오는 소리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다. 즉 술통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정신없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파리들은 먼지를 털는 사이 잠깐 날아갔다가 다시 친구들과 돌아와서 더 소란스럽게 한다. 돌아온 쉬파리들은 냄새를 좇아와서 배부름을 구하러 왔다가 음식에 빠져 혼을 잃는데, 이는 배부름만을 구하는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련에서 흥한 주는 쉬파리를 貪利者들과 견줄만하다고 하며, 이 둘의 소리가 서로 맞아 응한다고 한다. 즉 흥한 주는 쉬파리와 탐리자를 동일하게 인식하였으며, 이는 『詩經』에서부터 보여주었던 파리의 물성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畫竹屏風>

대나무 그림이 그려진 병풍

湘浦南邊第幾叢	상포 남쪽 가장자리에 줄지어 심어진 것을
誰人移種此屏中	누가 이 병풍에 옮겨와 심었는가.
似聞颯颯鳴寒雨	듣자니 겨울비가 소슬히 내리는 듯하며
疑聽蕭蕭響遠風	먼 곳에서 바람이 소소히 불어오는 듯하네.
舊蔭尙飄霜後粉	옛 죽순에는 아직도 서리 온 뒤 가루가 나부끼는 듯하고
新梢猶綴淚餘紅	헛가지는 여전히 붉은 눈물자국으로 영겨있구나.
高堂坐久心迷惑	높은 집에 오래 앉아 마음이 미혹되어
欲把眞僞問化工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자 조물주에게 묻노라.

이 시는 병풍에 그려진 대나무를 보고 일어난 감정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

94) 『古文眞寶』後集, 歐陽脩, <憎蒼賦蠅>, “...宜乎以爾 刺讒人之亂國 誠可嫉而可憎.”

다. 수련에서 ‘상포 남쪽 가장자리에 줄지어 심어진 것’이라고 대나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 홍한주가 詠物하고 있는 대나무는 舜임금의 妃인 娥皇, 女英과 관련된 대나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병풍에 옮겨와 심었다고 하여 그림이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음을 말한다. 이에 함련에서는 병풍 속으로 들어가 그림이 자아내는 분위기와 그림들을 묘사하는데, 겨울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죽순에는 여전히 서리가 내린 뒤의 가루가 흩날리고 있으며 햇가지에는 붉은 눈물자국이 영겨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아황과 여영이 흘린 피눈물이 영겨있는 소상반죽(瀟湘斑竹)을 말하는 것이다. 즉 홍한주가 이 시에서 영물한 대나무는 바로 아황과 여영의 고사를 떠올리며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홍한주는 대나무를 보고 자신이 느낀 새로운 모습에 대한 발견이 아닌 대나무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시를 보자.

<琴>

거문고

幽人夜不寐	깊은 밤 유인(幽人)은 잠을 못자고
起坐理床琴	일어나 앉아 평상에서 거문고를 뜯는다오.
栗里閒情少	율리(栗里)에는 한가로운 마음이 적고
湘江怨語深	상강(湘江)에서처럼 원망의 말이 많다오.
沉吟驚鶴夢	시를 읊노라니 꿈꾸는 학을 놀라게 하고
愁殺入松心	깊은 시름이 송심(松心)에 드는구나.
雖有離鸞操	비록 이란조(離鸞操)라 하더라도
空勞絃上音	부질없이 거문고를 뜯는다네.

거문고를 영물하는 시이다. 홍한주는 잠을 청하지 못하고 거문고를 뜯는 유인을 바라보고 있다. 함련에서 율리와 상강이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 율리는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던 지역으로, 율리로 돌아가는 노래를 담은 「歸去來辭」에서 도연명은 ‘거문고와 책을 즐기며 근심을 없앤다(樂琴書以消

憂)’고 하였다. 또한 상강은 순임금의 비인 아황과 여영이 순임금이 죽은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빠져 죽은 공간이며, 상군(湘君)이 되어 거문고를 뜯은 곳이다. 즉 율리와 상강 모두 거문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며, 홍한주는 각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한가로운 정(閒情), 원망의 말(怨語)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거문고의 소리로 인해 나타난 상황을 함련에서 등장한 도연명과 아황·여영과 관련하여 묘사한다. 6구부터 7구에서는 아황과 여영이 지니고 있는 깊은 시름을 소나무에 스며들도록 한다. 소나무의 마음(松心)은 굳고 고결한 절조로 비유된다. 즉 아황과 여영이 보여주고 있는 순임금에 대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한주는 미련에서 남녀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이관조」를 뜯는다고 하면서 시를 마친다. 이렇게 홍한주는 거문고와 관련된 전고로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도연명보다는 아황과 여영에 관련된 고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시를 보자.

<菊花>

국화

知爾佳名不畏霜	네가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명성을 알고 있으니
一年秋色在重陽	일 년 중 중양절에 가을빛을 띠는구나.
最憐杜牧滿頭插	두목은 국화를 가득 꽃음을 가장 어여쁘다 하였고
堪比韓公晚節香	한기의 늦가을 향기와 견줄만하네.
瘦葉月來映翡翠	파리한 잎 위로 달이 뜨자 비취색에 비치고
寒花風打落金黃	국화에 바람이 불자 누런 꽃이 떨어지네.
東籬誰飲故人酒	동쪽 울타리에서 누가 국화주를 마시는가
摘得盈襟臥醉鄉	국화를 따 옷깃에 가득 담고 누워 별천지를 즐기는구나.

이 시는 국화를 읊고 있다. 국화는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꽃으로, 四君子에 속하며 <愛蓮說>에서 ‘국화는 꽃 중의 은자이다.’라고 표현되었으며, 도연명에 의해 지조와 은일을 상징하는 꽃으로 가장 널리 알려졌다. 조선 문인들에게도 국화가 지니는 상징은 많은 영향을 끼치며, 한시의 주된 소재로 삼았다. 이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고결한 인격의 승화물, 음주와 교유

의 매개물, 가을 절서의 인식물로 인식되었다.⁹⁵⁾

홍한주는 국화를 보고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명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곧 국화가 지니고 있는 지조, 절개를 뜻한다. 또한 국화는 중앙절에 가을빛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함련에서는 국화를 소재로 쓴 두목(杜牧)의 <九日登高>에서 ‘국화를 반드시 머리에 가득 꽂고 돌아가리(菊花須插滿頭歸)’를 인용하며, 현재 홍한주가 바라보고 있는 국화가 한기(韓琦)의 <九月水閣>에 등장하는 늦가을 향기[晚節香]와 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파리한 잎 위로 뜬 달로 인해 꽃잎에는 비취색이 비추어지고 바람이 불어 누런 꽃이 떨어지는 국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련에서 홍한주는 다시 도연명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며 시를 마치고 있다.

이와 같이 홍한주는 국화라는 소재로 시를 읊음에 있어, 국화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상징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절개, 가을, 음주 등 여러 상징성을 들며 국화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梅花>

매화

不借春陰笑海棠	봄이 오지 않아도 해당화를 우습게 여기니
西湖處士味偏長	서호처사가 매우 즐거워하는구나.
雖教臘雪封肌骨	비록 겨울에 내린 눈이 살과 뼈를 덮는다 하더라도
別有輕風漏暗香	가벼운 바람 불어오고 은은한 향기를 새어 나오는구나.

이 시에서 읊고 있는 매화 역시 앞서 본 국화와 함께 四君子에 속하며 사군자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꽃이다. 그 이유는 추운 겨울에 꽃망울을 터트리는 생태적 특성이 성리학적 사유와 결합하여 ‘生生之理’를 가장 잘 구현하기 때문이다.⁹⁶⁾ 이에 매화는 사대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재가 되었으며, 그 어느 꽃보다도 지조와 절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

95) 이동재, 「한국 한시에 나타난 국화의 의미」, 『東方漢文學』第56輯, 동방학문학회, 2013, 247-271면 참조.

96) 신익철, 「조선시대 梅花詩의 전개와 특징」, 『東方漢文學』第56輯, 동방학문학회, 2013, 165-166면 참조.

되어 왔다.

홍한주는 해당화를 우습게 여기는 매화를 보여주는데, 매화는 해당화보다 훨씬 빨리 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서호처사는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서호처사는 宋나라 은사 林逋로, 매화를 좋아하여 매화를 심고 학을 길러 짝을 삼아 梅妻鶴子라고 불리며, 매화시로 유명한 시인이다. 3구와 4구에서는 눈으로 살과 뼈가 뒤덮인다고 하더라도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절개와 지조 있는 매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홍한주는 기존에 매화가 대표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은은한 향기로 치환시켜 표현한 것이다.

<鷓鴣>

자고

三三五五向南來	삼삼오오 남쪽으로 향해 오니
錦翼烟蕪一色裁	비단 날개가 연기를 한 빛으로 만드네.
最是相呼相應處	서로 부르며 대답한 곳은
落花流水越王臺	꽃 떨어지고 물 흐르는 월왕대라네.

이 시는 자고를 읊고 있다. 자고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사는 새로 이 시에서도 남쪽으로 향하는 자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모습이 한 빛을 만든다고 말한다. 즉 홍한주는 자고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성질을 통해 3-4구에서 자고가 서로 부르며 대답한 곳을 월왕대라고 말하는데, 이는 竇鞏의 <南遊有感>에서 등장하는 자고가 월왕대를 날아다녔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즉 홍한주는 자고를 영물함에 물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시 인용을 통해 시를 전개한 것이다.

<塵>

먼지

撲面拂衣漲紫陌	도성 길에 먼지가 넘쳐 얼굴을 때리고 옷을 털어내니
又隨朝雨浥春城	또 아침비 따라 봄 찾아오는 섬에도 먼지가 젖어드는구나.

畫樑幾逐歌聲落	단정한 대들보에서 몇 번이나 노랫소리 따라 떨어졌는가
羅襪曾因步裡生	비단 신발 신고 걸어 올 적에도 먼지는 생겨났었지.
簾外日光映迷亂	주렴 밖으로 햇빛은 어지러이 비추는 곳에
床邊鼠跡認分明	평상 가 쥐의 발자국 분명하구나.
茂弘何事嫌相汚	무홍은 무슨 일로 서로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했는가
亦有甌中不掃盈	또한 시루를 쓸지 않으니 먼지가 가득 차 있구나.

이 시는 총 다섯 개의 전고를 사용하며 먼지를 영물하고 있다. 우선 1구에서는 유우석의 <自朗州至京戲贈看花諸君子>에서 ‘장안의 먼지 얼굴에 묻어 털고 오노라니(紫陌紅塵拂面來)’를 인용하였다. 2구에서는 먼지 가득한 성 안에 봄비가 내려 먼지가 젖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3구에서는 진나라 육기의 시 <擬東城一何高>에 나오는 한나라 虞公이 ‘한 번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 모두 탄식을 하고, 두 번 노래를 부르면 들보 위의 먼지도 진동하여 날렸다(一唱萬夫嘆 再唱梁塵飛)’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4구에서는 曹植의 <洛神賦>에 ‘물결 위를 사뿐하게 걸어오매 비단 버선에서 먼지가 인다.(凌波微步 羅襪生塵)’를 인용하였다. 5구와 6구에서는 먼지가 주렴에 비친 햇빛에 어지러이 일렁이고 있는 모습과 먼지 위를 밟고 지나간 쥐의 발자국을 말하였다. 7구에서는 茂弘이 서쪽 지방관으로 있던 유량이 조정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불쾌하여,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부채를 들고 바람을 막으며 “유량의 먼지가 사람을 더럽히는구나.”라고 했다는 고사를 인용하였다. 8구에서는 밥 짓는 시루를 쓰지 않아 먼지가 앉았다는 뜻을 지닌 ‘증중생진(甌中生塵)’을 인용하였다. 즉 이 시는 2구, 5구, 6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먼지와 관련된 시, 고사를 인용하여 시를 전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연결성은 보이지 않는다. 즉 홍한주는 먼지를 영물함에, 정서를 가탁하는 것 보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전고를 통해 영물한 것이다.

<竹夫人>

죽부인

職在梳粧厭粉黛 직분은 단장하는 것이지만 꾸밈을 싫어하니

那能知我是卿卿 어찌 능히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겠느냐
 胸懷大抵多空濶 대저 마음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肌骨元來太瘦生 원래 바짝 마르게 태어났다네.
 抱節豈同雲雨夢 뼈를 안고자니 어찌 운우의 정을 함께 할 것이며
 虛心只解雪霜清 속이 비었으니 맑은 눈·서리 같은 마음을 아는구나.
 獨憐涼德專房夜 박덕하여 오로지 방에 있는 것이 가여우나
 猶恐西風動別情 오히려 서풍이 불어 이별의 정으로 밀려날까 두렵구나.

이 시는 죽부인을 읊고 있다. 죽부인은 대나무가 변형된 것으로서 사물의
 물질이 추상적으로 관념화 되고, 그 관념이 다시 의인화 되어 인간적인 특성
 으로 진화된 경우에 속하게 된다. 이에 대나무가 의인화 된 경우는 군자, 대
 부, 지사, 충신 등으로 묘사되며⁹⁷⁾ 죽부인은 대나무에 여성이 추가되어 ‘婦
 德’, ‘節操’를 표상하는 女範의 상징물이었다. 한국과 중국에서 죽부인 소재가
 차지하는 개념은 ‘부덕과 정절’, ‘투기에 따른 버려짐’이 있다.⁹⁸⁾

그렇다면 홍한주는 어떠한 시각에서 죽부인을 바라보았는지 살펴보자. 우선
 수련에서는 ‘직분은 단장하는 것’이라고 하며 죽부인이 부인이라는 특징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죽부인은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자
 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죽부인이 지니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이며 더 나아가 함련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나무의
 외형을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태생이 마르다고 묘사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죽부인의 절조를 칭송하며 미련에서는 서풍이 불어와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
 는 죽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홍한주가 바라보고 있는 죽부인
 역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죽부인의 특징과 부합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정절
 과 투기에 따른 버려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楊柳>

버드나무

97) 유종국, 「대나무의 문학적 형상화—〈絶義歌〉, 〈五友歌〉(竹), 〈竹尊者傳〉, 〈抱節君傳〉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9집, 국어문화회, 200-207면 참조.

98) 김창룡, 「죽부인의 문학적 심상」,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59-66면 참조.

嫋娜閒情二月時	간들거리는 한가한 정을 지닌 二月에
長條無數不勝垂	긴 가지들이 수 없이 드리워져 있구나.
隋皇堤上逢春眼	수 양제는 독 위에서 버드나무 새싹을 맞이했고
元亮宅邊帶雨眉	도연명의 집 주변에는 비처럼 알랑이는구나.
葉底烟籠粧碧玉	잎 밑에 아지랑이 자욱하여 푸른 옥으로 단장한 듯하고
枝間鶯擲織金絲	가지 사이로 피꼬리가 날아드니 황금실을 짜는 듯하구나.
行人立馬攀君折	행인이 말을 세우고, 버드나무 당겨 꺾으니
又是臨風管別離	또 바람을 맞으며 이별을 관리하는구나.

이 시는 버드나무를 읊고 있다. 이 시는 ‘묘사-전고-묘사-전고’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수련에서는 한가로운 이월이라고 배경을 설정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드리워진 버드나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전고를 인용하는데, 수나라 양제가 독 위에 버드나무를 심은 것과, 도연명이 집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은 것을 말한다. 경련에서는 다시 버드나무를 묘사하는데, 푸른 옥, 황금 실로 표현하며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이별과 관련된 고사를 사용하며 시를 마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홍한주는 전고를 활용하며 영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홍한주는 잘 쓰이지 않는 험박한 전고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사물의 전고를 활용하였다. 또한 전고를 사용한 목적이 경제성, 회화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물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 관념화된 이미지로 바라보고, 사물의 특성을 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3 절 폭넓은 소재 선택과 그 표현

앞 절에서는 홍한주가 누에, 백로, 대나무, 매화와 같은 일반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영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詠物集」에는 이 외에도 풍경(風磬), 그림자 등 다양한 소재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홍한주가 사물

을 매우 폭넓게 선택하여 영물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의 일화를 통해 홍한주가 지니고 있는 남다른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이 나아갈 때 송별해주는 자들이 시를 많이 지어 나는 홀로 시를 짓지 않고 이별을 말하였다. 일찍이 紫閣에서 만나 뵈었는데 공께서 기이하게 여기며 물어보아 내가 대답하길, ‘저는 본디 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감히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를 짓는 자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十百千에 이르렀으나 그들을 보는 자들은 매양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잠잘 생각만을 합니다. 대개 말과 뜻이 중복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혹 잘하는 자들이 있으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을 잠에 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이 말하였다. ‘너의 말이 분별 있구나. 네가 사람을 취할 때 또한 그가 한쪽 눈과 두 개의 코가 있는 이후에 구하니 附和雷同을 면할 수 있겠구나.’ 마침내 서로 보고 크게 웃었으나 끝내 시를 짓지는 않았다.⁹⁹⁾

1824년, 홍한주가 연경으로 떠나는 장인 권상신에게 보내는 열두 절구에 붙인 글이다. 홍한주는 시를 짓는 자들의 말과 뜻이 중복되어 지루하게 만든다고 여겨 자신 또한 글한 시를 지어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 것이 걱정되어 시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권상신은 ‘사람을 취할 때 한 개의 코, 두 개의 코가 있는 이후에야 구하니 부화뇌동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며 홍한주가 남들과 태도가 남달라 부화뇌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즉 홍한주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홍한주가 영물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曉色>

새벽빛

水村山郭一何茫 물가의 산촌은 아득하고

99) 『海翁詩藁』, 「覆瓿三集鈔」 <送外舅西漁權公 以上价赴燕 并叙> “公之行送者多歌詠 余獨無一語道離別 嘗謁公於紫閣之宅 公恠而問 余對曰翰周素不解詩 不敢奉教 且爲此者 繇古迄今 無慮屢十百千焉 而見者每欠伸思睡 盖辭旨重複舊全 時或過之 尺短寸長 翰周苦不欲爲人藉睡 公曰爾言辨矣 爾之取人 亦求其有一目兩鼻而後 可以免蠹同於人也 遂相視大笑 然終不作一詩…”

似霧非煙淡又蒼	안개인 듯 안개가 아니고 맑고 푸르구나.
征客衝過渾不斷	나그네가 지나가나 흐려 끊어지지 않고
遊人冒去漸看長	遊人이 무릅쓰고 지나가고 점점 늘어져 보이는구나.
更疑淑氣凝春樹	온화한 기운이 봄 나무에 모인 것이 의심되어
欲亂香薰着酒觴	좋은 향기를 퍼지게 하고자 술잔에 넣어둔다네.
路指東西難辨處	길은 동서를 가리키나 분별하기 어려워
隨風頃刻化朝陽	잠시 바람을 따라 잠깐 새에 아침별으로 변하는구나.

새벽빛은 ‘날이 막 밝을 무렵 하늘의 색’이란 뜻을 지니고¹⁰⁰⁾ 있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 현상이다. 흥한주는 새벽빛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직 동이 틀기 전이기 때문에 산촌은 어둑어둑하여 안개인 듯 하지만 또 안개가 아니며, 맑고 푸르다고 한다. 이는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지만 결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함련에서 나그네와 유인은 안개로 인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곧 경련에서 온화한 기운이 나무에 모인 듯하고, 좋은 향기를 퍼지게 하고자 술잔에 넣는다고 말한다. 미련에서는 새벽빛이 어둑고 아득하여 길이 어디를 가리키는 몰랐으나 잠깐 새에 아침별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風磬>

풍경

澄於明鏡滑於水	맑은 거울보다 맑고, 물보다 매끄러우니
半夜風來動最輕	한밤중에 바람 불어 풍경을 흔들어대네.
孤客乍聞疑竹韻	외로운 객은 언뜻 피리 소리인가 의심하며
幽人纔聽惹詩情	유인은 가만히 듣고 詩情에 이끌린다네.
清儉露草虫吟切	맑은 소리가 이슬 맺힌 풀에 적시니 소리 끊어지고
響落雲山鶴夢驚	구름진 산에 메아리 울리니 학은 꿈에서 깨네.
若到玉門關外曉	만약 새벽에 옥문관 밖에 이르게 된다면
也應和笛曲難成	화답하는 피리 소리가 완성되기 어렵겠구나.

100) 『漢語大事典』, “拂曉時の天色”이라고 되어 있다.

풍경은 소리를 내는 사물이다. 홍한주는 풍경의 형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 풍경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에 관심을 갖고 이 시를 읊고 있다. 즉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수련에서 풍경에서 나오는 소리를 거울, 물과 비교하며 더 맑고 매끄럽다고 표현하며, 깊은 밤에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흔들린다고 한다. 바람으로 인해 퍼지는 풍경소리를 듣고 외로운 객은 피리 소리로 의심하고, 유인은 詩情에 이끌리게 된다. 즉 이 풍경소리는 수련에서 표현한 것처럼 맑고 청아하여 외로운 객과 유인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다. 함련에서는 풍경 소리가 이슬에 맺힌 풀에 닿아 소리가 끊어지며, 동이틀 무렵으로 구름이 낀 산에 메아리로 울려 학이 꿈에서 깬다고 한다. 이는 자연과 접한 모습으로, 홍한주가 풍경 소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影>

그림자

倏去忽來每夜因	매양 밤이 되면 갑자기 갔다가 문득 돌아오니
非仙非鬼又非人	신선도, 귀신도 아닌 것이 또 사람도 아니구나.
隔簾無語渾難接	주렴을 사이에 두고 아무 말 없고 흐릿하여 접하기 어려우나
得月相隨故欲親	달이 뜨면 서로 따라다니니 참으로 친해지고 싶다네.
恍惚初疑燈下客	황홀하여 처음에는 등불 아래에 손님인가 의심했다가
依稀還作水中身	어렴풋이 다시 물 가운데 떠 있구나.
子虛蹤跡尋無處	그대의 자취가 처한 곳을 찾을 곳이 없으니
更向梅窓問假眞	다시 매화나무 핀 창을 향하여 진위를 묻는다네.

이 시는 그림자에 대한 호기심을 그리면서 홍한주가 영물시의 소재로 삼는데 독특한 시점을 보여준다. 그림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홍한주는 그림자의 특징을 포착하고 제재를 삼아 시를 읊는다. 수련에서는 그림자를 신선, 귀신,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홍한주는 그림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본다. 함련에서 주렴을 두고 아무 말도

못하지만, 또 밤이 되고 달이 뜨면 따라다니니 친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흥한주는 그림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 번 의심한다. 그러나 등불 아래에 있다가도 갑자기 물 가운데 떠 있는 신출귀몰한 모습을 보고 결국엔 그림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霧>

안개

拂拂霏霏起水面	수면 위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惹空橫樹失巖巒	허공의 나무에 걸쳐 있으니 바위산이 보이지 않네.
曾因曉雨來時濕	일찍이 새벽비가 내려 습해졌다가
又被朝陽染處乾	또 아침별이 들면 습했던 곳도 마른 빛으로 물들겠지.
楊柳半藏濃淡裏	버드나무가 반쯤 짙은 속에 감추어지고
樓臺盡入有無間	누대는 모두 다 있는 듯 없는 듯 들어가 있네.
着花莫礙詩人眼	피어 있는 꽃은 시인의 눈에 방해가 되지 않고
醉把那能仔細看	술에 취해 꽃을 쥐고 어찌 자세히 들여다보겠는가.

이 시는 비가 내린 후에 사방에 낀 안개에 대해서 읊고 있다. 흥한주는 비가 부슬부슬(霏霏)하게 내리고 있다고 표현한다. 거센 바람을 동반하며 퍼붓는 비가 아닌,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벽인 상황이기에 조금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있는 나무에 안개가 끼 건너편에 있는 바위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곧 아침이 되면 햇볕으로 새벽 동안 축축했던 곳이 마른 빛으로 물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새벽이기 때문에 버드나무와 누대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 묻혀 있다. 또한 안개 때문에 시인은 길가에 피어 있는 꽃도 발견하지 못하며, 더욱이 술에 취한 사람들은 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흥한주는 일반적인 사물이 아닌 상황을 유발시키는 현상을 포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영물시를 사물을 읊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물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흥한주는 사물의 범위에 ‘사람’을 허용하면서 영물하였다. 특징적

인 부분은 사람의 범위를 어부, 나무꾼, 목동, 어옹(漁翁) 등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영물한 것이다. 다음 시를 통해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물하였는지 보고자 한다.

<樵夫>

나무꾼

不染人間半點埃	인간 세상의 아주 조금의 티끌에도 물들지 않아
芒鞋處處踏蒿萊	곳곳마다 짚신을 신고 다니며 잡초를 밟는다네.
拆薪歌起川原曠	땃나무를 꺾고 노래를 부르니 강의 원류가 트이고
伐木聲幽洞壑開	벌목하는 소리 그윽히 들리니 골짜기가 열렸다네.
田口曉隨寒雨去	새벽이 온 밭에서 찬비 따라 가고
山腰春伴白雲來	봄이 찾아 온 산 중턱에는 흰 구름이 떠있다네.
此身正學涪陵老	이 몸은 바로 부릉의 노인에게 배웠으니
肯向華山作拜迴	기꺼이 화산(華山)을 향하여 절하고 돌아오리라.

이 시는 나무꾼에 대해서 읊고 있다. 홍한주는 나무꾼이 세속의 풍파에 물들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함련에서는, 나무꾼이 나무를 때고 벌목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나무꾼의 행위로 인해 강과 골짜기가 트인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홍한주가 나무꾼을 단순히 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물들어 살아가는 인물로 바라본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도 홍한주는 자연과 어우러지며 한가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어옹에 대해서 읊고 있다.

<釣翁>

고기 잡는 늙은이

腥烟一抹接江口	비린 연기 씻겨 나간 강구에 마주 앉으니
密網打魚是釣徒	빽빽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니 바로 낚시꾼이구나.
竟日生涯杏鱸膾	온종일 은행 죽을 먹고
滿船行李酒葫蘆	배에 가득한 보따리는 호로에 담긴 술뿐이라네.
月中橫笛惟無事	달밤에 피리부니 아무 일 없고

雲際垂綸也自娛	구름 속에서 낚싯줄을 드리우며 혼자 즐기는구나.
隨處忘機滄海叟	창해의 늙은이는 곳곳에 속세의 일을 잊으니
泛如鷗鷺浴晴湖	구로(鷗鷺)와 같이 비 갠 호수에서 목욕하는 듯하구나.

이 시는 고기 잡는 늙은이에 대해서 읊고 있다. 홍한주가 바라보고 있는 어옹은, 은행 죽을 먹고 보따리에는 술 밖에 없는 궁핍한 모습의 늙은이이다. 그러나 이 어옹은 달밤에 혼자 피리를 불고, 낚시를 하면서 상황을 즐기고 있다. 군색한 상황에서도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어옹이 속세에서 살던 일들을 모두 잊고 갈매기와 백로와 함께 벗어나 속세에서 벗어나 강호에서 은거하며 목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홍한주는 어옹의 모습이 군색함에도 불구하고 유유자적하게 은거하는 어옹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牧童>

목동

清歌曉起板扉西	맑은 노래가 널문 서쪽에서 새벽에 들려오고
香稻催炊共聽雞	밥 짓는 향기 맡으며 닭 울음소리 들리는구나.
騎犢等閑歸石磴	송아지를 타고 무심결에 돌계단 돌아오며
牧羊辛苦過田泥	양을 치며 힘들게 진흙 밭 지나가는구나.
每看山下遺鞭睡	매양 산 밑을 바라보며 채찍을 두고 잠에 들다가
或聚林間失路迷	혹 수풀 사이에 모였다가도 길을 잃어 헤매는구나.
群穉不知風雨惡	어린 무리는 비바람의 사나움을 알지 못한 채
笛聲隱隱下前溪	은은한 피리소리에 앞 시내로 내려오는구나.

이 시에서는 양을 치는 목동이 새벽에 일어나 양을 모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수련에서 새벽이 온 상황을 밥 짓는 향기와 닭 울음소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함련부터는 목동이 양을 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목동은 송아지를 타고 양을 몰고 있는데, 진흙 밭을 지나가기도 하고 잠시 숨을 돌리다가 잠에 들기도 하며, 양들이 이리저리 다녀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홍한주는 사람의 소재 중에서도 특히 자연과 어우러지거나 속세에서 벗어난 은일 지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영물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이는 홍한주의 장인 권상신에게 받은 영향으로 속세를 벗어난 인물에 관심을 두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권상신은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의를 입는 선비처럼 소박하게 살았으며, 별장에 가서도 마치 신분을 숨기고 고기를 잡는 듯하여 사람들이 권상신이 재상(宰相)의 벼슬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¹⁰¹⁾

홍한주는 문학 초기부터 권상신과 교유하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앞서 살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지만 속세에서 벗어나 은일 지향을 추구했던 권상신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인물에 대한 영물을 어옹, 초부 등 자연과 어우러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홍한주는 학시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을 접하며 영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와 사람까지 영물하는 모습은 홍한주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01) 趙斗淳, 『心庵遺稿』 卷二十七, 「諡狀」, <禮曹判書贈右議政權公 常愼 諡狀>, “...遇一邱一壑之奇勝 輒融然神會 竟日忘返 至官位隆顯 自視猶布素 短驢羸僮 往來湖墅 若將混迹漁釣 人不知其爲宰相也...”

제 4 장 結 論

본고는 홍한주가 초기 문학 활동의 과정에서 창작한 영물시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기저 단계로 2장에서는 홍한주의 문학 활동을 살펴보고, 문집 개황하였다. 홍한주의 문학 활동은 크게 문학적 배경과 시사 활동으로 보았다. 1절 문학 활동에서, 문학적 배경은 ‘홍한주와 재종형제’, ‘홍한주와 권상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홍한주는 재종형제인 홍석주, 홍길주, 홍현주와 문학적으로 밀접한 교유를 하였으며 그들에게서 문학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홍한주와 권상신의 문학적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혼맥으로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친밀한 교유관계를 형성하였는데, 문학적 담론을 나누는 각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사 활동은 서울·경기지역과 지방에서 활동한 것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홍한주는 서울과 경기지방에서 ‘南社’, ‘洛社’ ‘駱山詩社’에 참여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의성과 상주에서 ‘左右社合’와 ‘尙山韻會’에 참여하여 시사를 주도하였다. 그는 詩社를 특정 계층이나 당파가 아니라 오직 詩才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생각하였다.

2절 문집 개황은 『海翁存藁』와 『海翁藁』를 비교·고찰하였으며, 본고에서 논의가 되는 「詠物集」을 중점적으로 시기 및 소재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홍한주 문학 활동 초기에 영물시에 주력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詠物集」을 중심으로 홍한주의 영물시를 살펴보았다. 홍한주는 『論語』에서 말하는 학시와 같은 맥락에서 학시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즉 홍한주는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詠物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영물시 창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영물시를 읊는 과정에서 제재로 삼은 사물을 관찰하고 그 사물의 물상과 물성을 꿰뚫히게 묘사한 것이다. 둘째, 대상으로 삼은 사물을 관념화된 이미지 틀에서 보았으며 홍한주가 학문의 수단으로 영물시를 삼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홍한주가 폭넓게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여, 청각적인 요소 및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물을 바라보고 영물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홍한주의 초기 문집인 「영물집」을 대상으로 영물시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홍한주의 한시를 이해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資料

- 權純九. 『中東詠物詩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청구기호 D2A⁷)
- 權常愼. 『西漁遺稿』,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청구기호 古 3428-634 -v.1-5)
- 趙斗淳. 『心庵遺稿』, 한국문집총간, 307.
- 洪直弼. 『梅山集』, 한국문집총간, 295.
- 洪翰周. 『海翁存藁』,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청구기호 K4⁶⁶⁵⁶)
- 洪翰周. 『海翁藁』, 한국문집총간, 306.

2. 論著

- 강명관. (1999).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서울: 소명출판.
- 김학주. (2014). 『중국문학사』. 신아사.
- 심경호. (2006).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 홍한주. 김윤조·진재교 역. 임완혁 윤문. (2013). 『19세기 견문지식의 축적
과 탄생 : 지수염필』. 소명출판.
- 이종찬. (2007). 『풀어 쓴 한문학개론』. 새문사.

3. 論文

- 강명관. (1996).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18,19세기 京華世
族 문화의 한 단면. 『민족문화사연구』, 제9호, 171-194, 민족문화사연

구소.

_____. (1998). 조선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동양한문학연구』, 제12집, 5-38, 동양한문학회.

강혜선. (2004). 洪翰周의 漢詩 연구. 『돈암어문학』, 제17호, 351-383, 돈암어문학회.

구본현. (2010). 漢詩에서의 用事 활용 양상 연구-성공적인 用事의 요건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제22호, 75-102, 국문학회.

김만원. (1988). 中國詠物詩試論- 六朝를 中心으로-. 『중국문학』, 16집, 49-81, 한국중국어문학회.

김선희. (2015). 19세기 지식장의 변동과 문명의식: 홍한주, 이규경,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48집, 207-251, 한국사상사학회.

김성룡. (1997). 용사(用事) 이론의 시학적 의의. 『국어국문학』, 제120권, 153-177, 국어국문학회.

김영민. (2010). 英·正祖代 豊山 洪鳳漢家門의 부흥과 분열. 『史學研究』, 제100호, 139-177, 한국사학회.

김윤조. (2008). 홍한주의 일기와 <지수염필>저작. 『漢文學報』, 제19집, 915-934, 우리한문학회.

김원준. (2008). 영물시를 통해 본 원천석의 의식적 면모. 『인문연구』, 제55호, 201-23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준옥. (1991). 詠物詩의 性格 考察. 『한국언어문학』, 제29집, 259-281, 한국언어문학회.

김재욱. (2009). 『牧隱 李穡의 詠物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창룡. (2005). 죽부인의 문학적 심상.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제1호, 49-67,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김하라. (2015). <西漁遺稿>와 그 주변. 『규장각』, 제46집, 85-119,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김혜경. (1999). 『海士 洪翰周의 <智水拈筆>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환. (2011). 『邵亭 金永爵의 漢詩와 詩社活動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찬식. (2014). 澤堂 李植의 詠物詩 研究. 『어문연구』, 82집, 99-132, 어문연구학회.
- 신익철. (2013). 조선시대 梅花詩의 전개와 특징. 『東方漢文學』, 第56輯, 165-216, 동방한문학회.
- 유종국. (2010). 대나무의 문학적 형상화-〈絶義歌〉, 〈五友歌〉(竹), 〈竹尊者傳〉, 〈抱節君傳〉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9집, 199-227, 국어문학회.
- 윤정현. (1985). 六朝詠物詩의 興盛背景. 『中國文學研究』, 제3집, 51-75, 한국중문학회.
- 윤재환. (2015). 玉洞 李澈의 詠物詩 研究. 『漢文學論集』, 第四十輯, 83-108, 근역한문학회.
- 이경구. (2013). 홍한주의 <智水拈筆>. 『한림대학교 개념과 소통』, 제12호, 365-372,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 이국진. (2008). 이학규 영물시 연구. 『대동한문학회지』, 제29집, 259-305, 대동한문학회.
- 이군선. (2008). 해거 홍현주의 서화에 대한 관심과 주장. 『한문교육연구』, 제30호, 285-307, 한국한문교육학회.
- _____. (2014). 豊山洪氏門中の 家門意識- 洪良浩와 洪敬謨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43권, 467-502, 한국한문교육학회.
- 이동재. (2013). 한국 한시에 나타난 국화의 의미. 『東方漢文學』, 第56輯, 247-276, 동방학문학회.
- 이동훈. (2011). 詠物詩의 「不卽不離」의 창작기법에 관한 小考. 『중국학논총』, 제33집, 153-180, 한국중국문화학회.
- 이상동. (1997). 『洪翰周 <智水拈筆> 研究-19세기 중반 한 지식인의 時代認識

- 과 文學論』.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용. (2005).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0輯, 247-281, 한국서지학회.
- 이종건. (1984). 詠物詩考. 『사림어문연구』, 제1호, 77-95면,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림어문학회.
- 이지운. (2005). 李商隱 詠物詩 試論. 『中國語文學誌』, 第17輯, 169-205, 중국어문학회.
- 임승배. (2001). 詠物詩의 流變. 『중국문학연구』, 제23집, 79-91, 한국중문학회.
- 임원빈. (2010). 皮日休의 詠物詩 研究. 『외국문학연구』, 37집, 339-35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 _____. (2010). 陸龜蒙의 詠物詩 고찰. 『중국연구』, 제48권, 179-196,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장효현. (1988). 『徐有英 文學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후수. (2015). <樂健志詠>으로 본 17세기 漢江 下流의 새로운 문화 공간 杏湖. 『東方學』, 第32輯, 333-358,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진재교. (2003). 경화세족 독서성향과 문화비평-19세기 洪奭周家の 경우. 『독서연구』, 제10호, 241-274, 한국독서학회.
- _____. (2005). <智水拈筆>연구의 一端-작가 홍한주의 가문과 그의 삶. 『漢文學報』, 제12집, 325-351, 우리한문학회.
- _____. (2005). 19세기 筭記體 筆記의 글쓰기 양상: <智水拈筆>를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유통. 『한국한문학연구』, 제36집, 363-416, 한국한문학회.
- _____. (2007). 李朝 後期 筭記體 筆記 研究: 지식 생성과 유통의 관점에서. 『한국한문학연구』, 제39집, 387-425, 한국한문학회.
- _____. (2007). 19세기 京華世族의 讀書文化: 洪奭周 家門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16집, 137-168, 우리한문학회.
- 최 식. (2008). 沆瀣 洪吉周의 讀書趣向과 <書林日緯>. 『대동한문학회지』, 第

二十九輯, 415-453, 대동한문학회.

최은주. (2012). 지방수령의 지역에서의 교유와 문자 수수-19세기 상주목사 홍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嶺南學』, 제22호, 243-27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

한영규. (2014). 劉在建의 <古今詠物近體詩> 編成 方式과 그 特性. 『語文研究』, 제42권 제3호, 259-2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허경진. (2010). 일본 시인 이시바타 사다(石幡貞)의 눈에 비친 19세기 부산의 모습. 『인문학논총』, 제15집, 49-71,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허권수. (2006). 淵泉 洪奭周의 家門的 문학환경과 문학성향. 『漢文學報』, 第15輯, 5-38, 우리한문학회.

허인재. (2015). 『新齋 洪樂命 史論 散文 譯註』.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f Hong-HanJu' Poems on thing -Focusing on the 『HeaOngJonGo』 『YengMulJip』-

Yoon, So-Yeon

Major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Yeongmulsi recorded in 『Haeongjongo』 『Yeongmuljip』 of Hong Hanju. Hong Hanju is a Poongsan Hongmun belonging to Gyeonghwasejok and is a nineteenth century literary man who actively interacted with Sadaebu writers of the time. Although the research on his Chagiche pilgiryu 『Jisuyeompil』 has been carried out, the study on Hansi is negligible. Hence, in this study, I focused on the early literary period of Hong Hanju and researched 'Yeongmulsi' which he made special efforts on during this period.

For this purpose, chapter 2 examined the literary background and current affairs activities of Hong Hanju and examined the overview of his literary works and the composition of 『Yeongmuljip』. The point of attention in Hong Hanju's literary background is his literary exchange with his second cousin brothers, Hong Sukju, Hong Gilju, and Hong Hyunju from early childhood. These were literary figures of the time, and Hong Hanju was influenced greatly by literary and academic exchanges with them. In addition, Hong Hanju was in a literary relationship with his father-in-law, Seoee Kwon Sangsin, from early on, and showed a

human relationship that is more than a personal connection from marriage. In the current affairs activities, the activities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the activities in provinces were investigated separately. In Seoul and Gyeonggi area, he interacted with Sadaebu writers such as 'Namsa', 'Naksa' and 'Naksansisa' and engaged in current affairs activities. He held 'Jwausahapsa' and 'Sangsanunhoe' in provinces and showed himself to be in harmony with the people with poetic talent regardless of status. In the overview of his literary works, I reviewed the constitutional features of 『Haeongjongo』 and 『Haeonggo』, and examined its composition in detail, focusing on the 『Yeongmuljip』 discussed in this paper. 『Yeongmuljip』, excluding 5 su, is the collection of Yeongmulsi that were created at the ages of between 15 and 18 of Hong Hanju. This shows that Hong Hanju created it during the period of early literary activity

In Chapter 3, after defining as 'Yeongmusi as Haksi process', I examined Yeongmusi of Hong Hanju in three aspects.

First, it is 'the exploration and vivid depiction of things.' I examined how Hong Hanju, who focused on Yeongmul in the process of learning poetry, looked and portrayed things.

Second, it is 'the use of Jeongo and the pursuit of erudition'. Hong Hanju practiced through Yeongmulsi to learn and utilize the ideational meaning and image possessed by things.

Third, it is 'the wide selection of material and its expression'. In the early stage of literature, he created Yeongmulsi to learn about things and poetry, but he shows a wide range of materials. This suggests that Hong Hanju had broad reasons.

【Keyword】 Hong Hanju, Poongsan Hongmun, Gyeonghwasejok, Yeongmusi, Haksi, Kwon Sangshin